

컨슈머인사이트

월간 국내·해외 여행 동향 보고

2024. 11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국내외 여행 생태계와 여행소비자 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첫째



현재의 국내외여행 소비자 행태를
월 단위로 추적 조사하여
여행 시장 상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코로나 이전(2019년)의 상황과
월 단위로 그 결과를 비교해
여행 시장의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셋째



현상 평가와 과거대비
자료 분석을 통해
다가올 변화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격변하는 여행 소비자 환경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적응과 예측을 도와
여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국내·해외 여행 동향 요약

국내외 여행의 ▲지난 1년간의 변화 ▲코로나 이전 대비 현 상황 ▲향후 전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국내 여행	해외 여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69.3%로 4개월 간 69%대에 머뭇(p.9). ▶ 국내여행 평균 기간은 3.00일, 1인 당 총 경비는 23.1만 원, 1일 당 7.7만 원임(p.11). ▶ 단기간 여행(1박 2일)은 3개월 간 지속적으로 증가세인 반면, 2박 3일 이상의 여행은 계속된 감소세를 보임(p.11).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여행 경험률은 35.0%, TCI 83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낮음(p.25). ▶ 평균 기간은 6.43일, 1인 당 총 경비 180.5만 원, 1일 당 경비 28.1만 원임(p.27). ▶ 아시아 지역은 경험률 81.7%, 계획률 78.8%로 모두 TCI 116을 기록해, 해외여행의 중심으로 자리잡음(p.26, 34).
코로나 이전 대비(2019년 11월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과 계획률의 TCI는 각각 94, 93으로 코로나 직전 보다 여행률이 전반적으로 모두 낮음(p.9, 18). ▶ 전국 여행지 중 코로나 이전 대비 수도권(TCI 104), 충청권(TCI 129)만이 숙박 여행 경험률(점유율)이 높음(p.10) 	코로나 이전 대비(2019년 11월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여행 경험률 TCI는 83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은 어려워 보임(p.25). ▶ 계획률 역시 TCI 82 수준으로 해외 여행 시장의 정체가 계속됨(p.33). ▶ 전체 해외여행지 중 아시아만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상승함(+11.2%p)(p.26). ▶ 평균 여행 기간은 TCI 95로 줄어들었으나, 1인당 총 경비 TCI 120, 1일당 경비 TCI 127로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높아진 수준임(p.27).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행 계획률은 지난 1년 중 가장 낮았으며(66.2%), 이는 코로나 이전보다 낮아(TCI 93), 여행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p.18). ▶ 충청권은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관심이 높아진 곳으로(TCI 140), 단기간-근거리 여행의 선호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p.19).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행과 동일하게 해외여행에서도 여행 감소와 여행비 지출 축소가 예상됨(p.32). ▶ 계속된 지출 의향 감소로 인해 해외여행의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p.33). ▶ 국내여행과 마찬가지로 해외여행도 불경기 속 가심비 선호 경향이 높아져, 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한 근거리-단기간-저비용 여행의 선호가 계속될 것임(p.26, 34).

24년 11월 이달의 톱픽 : 2024-25 여행 소비자 행태와 전망

	여행실태							여행 계획		
	여행 경험률	기간	1인당 총 비용	일 평균 비용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숙박	여행 계획률	여행 지역	주 활동(목적)
국내여행 TCI 94	69.3% (지난 3개월)	3.00(일)	23.1(만원)	7.7(만원)	1 경상권 26.1%	1 자연풍경 24.0%	1 호텔 27.8%	66.2% (향후 3개월)	1 경상권 25.2%	1 자연풍경 23.9%
해외여행 TCI 83	35.0% (지난 6개월)	6.43(일)	180.5(만원)	28.1(만원)	1 아시아 81.7%	-	-	46.3% (향후 6개월)	1 아시아 78.8%	-

* TCI(Travel Corona Index 여행 코로나 지수)는 2024년 당월 결과값을 '코로나 발생 전년(19년) 동월 결과값'으로 나눈 수치임

: (2024년 11월 결과) / (2019년 11월 결과) * 100

** ▲▽는 TCI(여행 코로나 지수) 100 대비 ±10 이상인 수치임

*** '24년 2월 부터 여행 기간은 '박'에서 '일'로 전환함.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 해당 자료는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5년 8월 부터 매주 시행하고 있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기초로 함.

모집단

표본추출 틀

표본 규모

표본추출 방법

자료수집 방법

표본의 구성(할당)

조사기간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 컨슈머인사이트 86만 온라인 비편향 패널(Invitation Based Panel)
- 매주 500명 (연간 누적 26,000명, 3개월 내 동일응답자 참여 불가)
- 성X연령 및 지역별 할당 후 무작위 추출
- Online/Mobile -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11월 전체		(2,000)	100.0
성별	남성	(1,017)	50.9
	여성	(983)	49.1
연령대	20대	(335)	16.7
	30대	(355)	17.8
	40대	(428)	21.4
	50대	(470)	23.5
	60대 이상	(412)	20.6
성BY 연령대	남성 20대	(176)	8.8
	남성 30대	(184)	9.2
	남성 40대	(216)	10.8
	남성 50대	(237)	11.9
	남성 60세 이상	(204)	10.2
	여성 20대	(159)	8.0
	여성 30대	(171)	8.6
	여성 40대	(212)	10.6
	여성 50대	(233)	11.6
	여성 60세 이상	(208)	10.4

		표집 사례수	
		사례수(명)	구성비
결혼 여부	미혼	(628)	31.4
	기혼	(1,262)	63.1
	기타	(110)	5.5
가구 상황	미혼	(628)	31.4
	무자녀 부부	(150)	7.5
	자녀 유아&초등기 (막내 입학 전~초등생)	(358)	17.9
	자녀 청소년기(막내 중고생)	(160)	8.0
	자녀 성인기(막내 대학)	(524)	26.2
자녀 독립기(막내 결혼)	(180)	9.0	
가구 월소득 (모름 제외)	300만원 미만	(184)	12.4
	300~500만원 미만	(386)	26.0
	500~700만원 미만	(400)	26.9
	700만원 이상	(515)	34.7

- 매주 '월요일~일요일' 자료 수집 : 연중 무휴(연 52주)

2024년 10월 (전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국군의날	2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2024년 11월 (당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4년 12월 (익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성탄절	26	27	28
29	30	31	1	2	3	4

2023년 11월 (전년 동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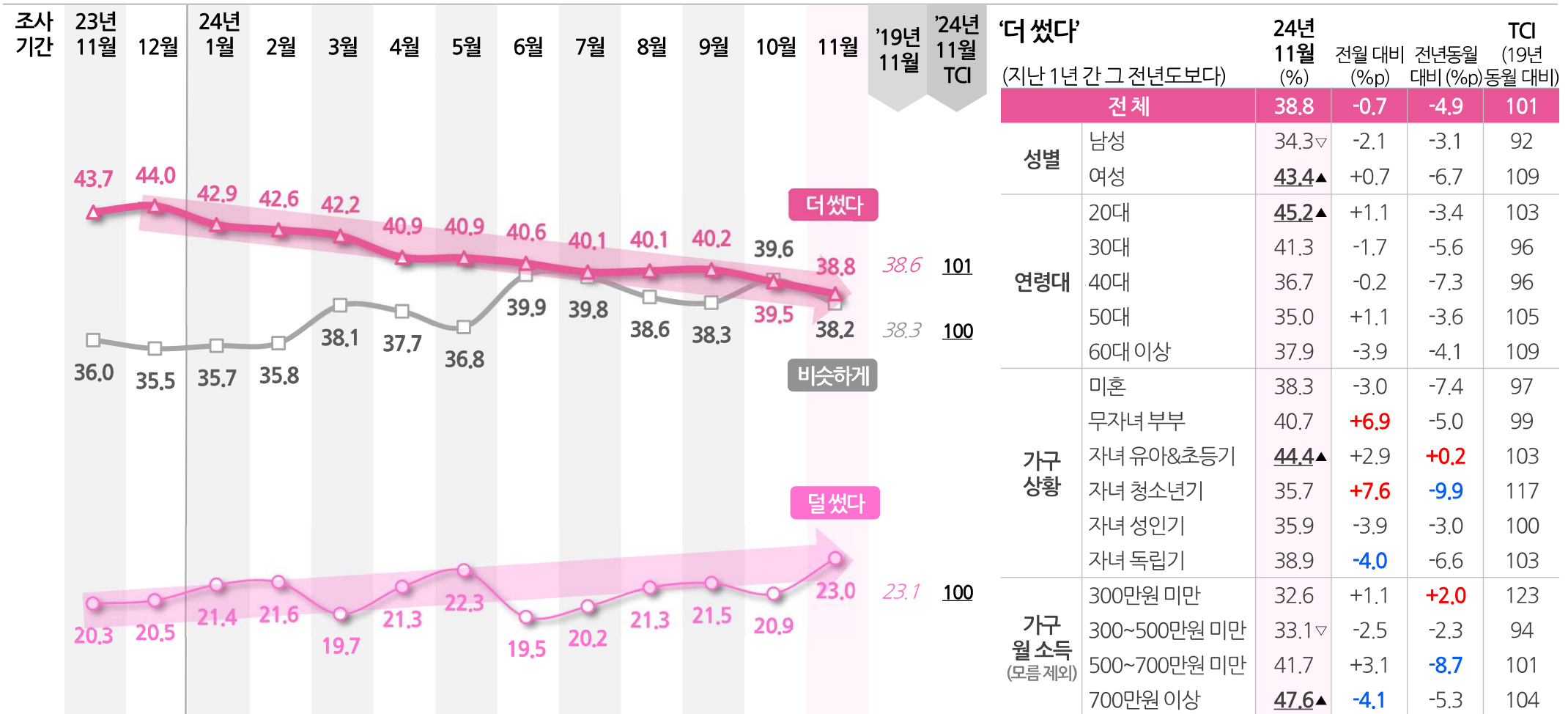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여행비 지출 동향 (지난1년)

- 여행비를 '더 썼다'는 응답은 38.8%로 '23년 12월 이후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전년 동월 대비 4.9%p 낮았고, '덜 썼다'는 2.7%p 높아 여행비 지출이 계속 축소되고 있음을 반영함.
- '19년 11월과 비교한'24년 11월의 '더 썼다', '비슷하게', '덜 썼다'는 응답은 모두 ±0.2%p 내외로 5년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됨.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20대 △자녀 유아&초등기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의 여행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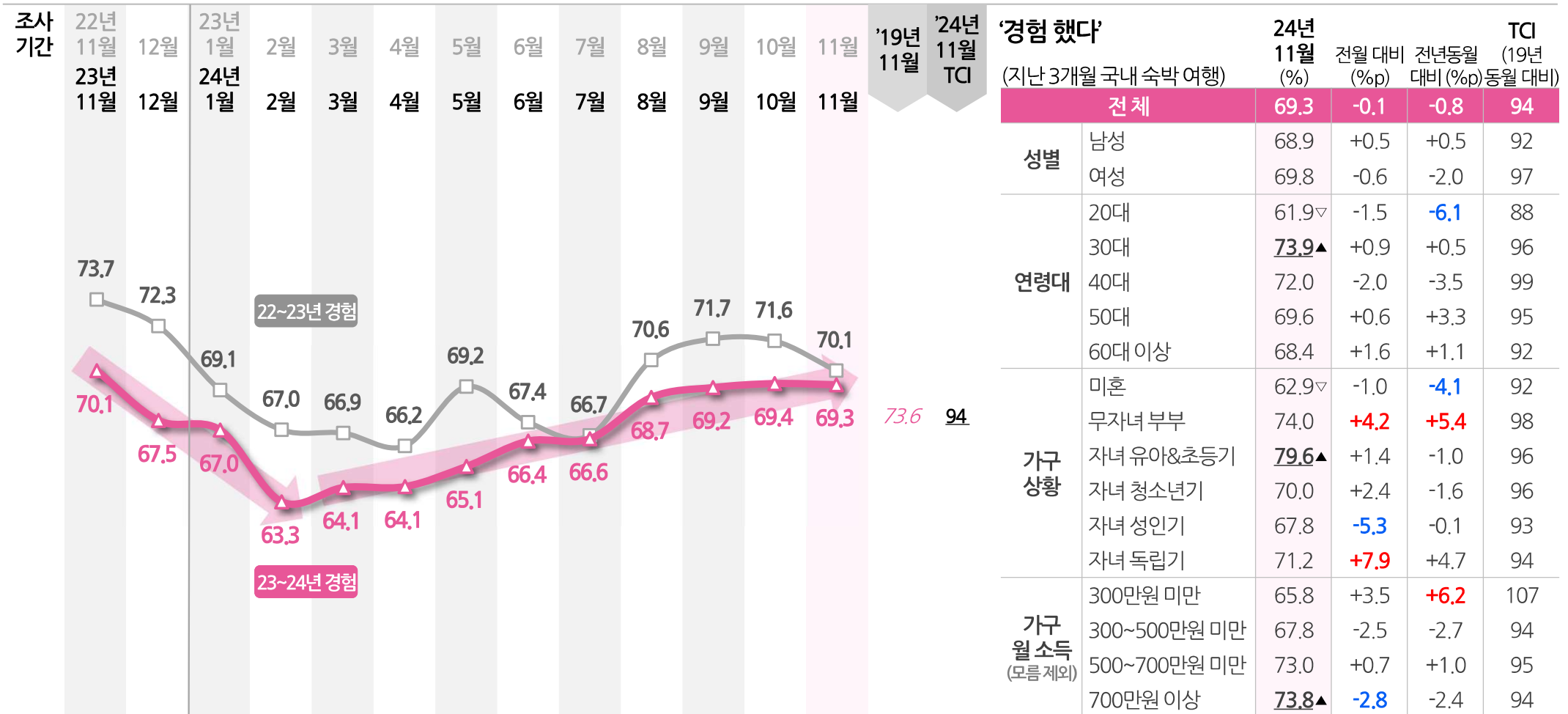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국내 해외 합하여 관광 여행비로 쓴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됩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 (지난 3개월)

- 국내 숙박여행 경험률은 '24년 2월부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4개월 간 69% 수준에 머무름.
- 지난 2년 간의 추이는 12월부터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인구특성별로는 △30대 △자녀 유아&초등기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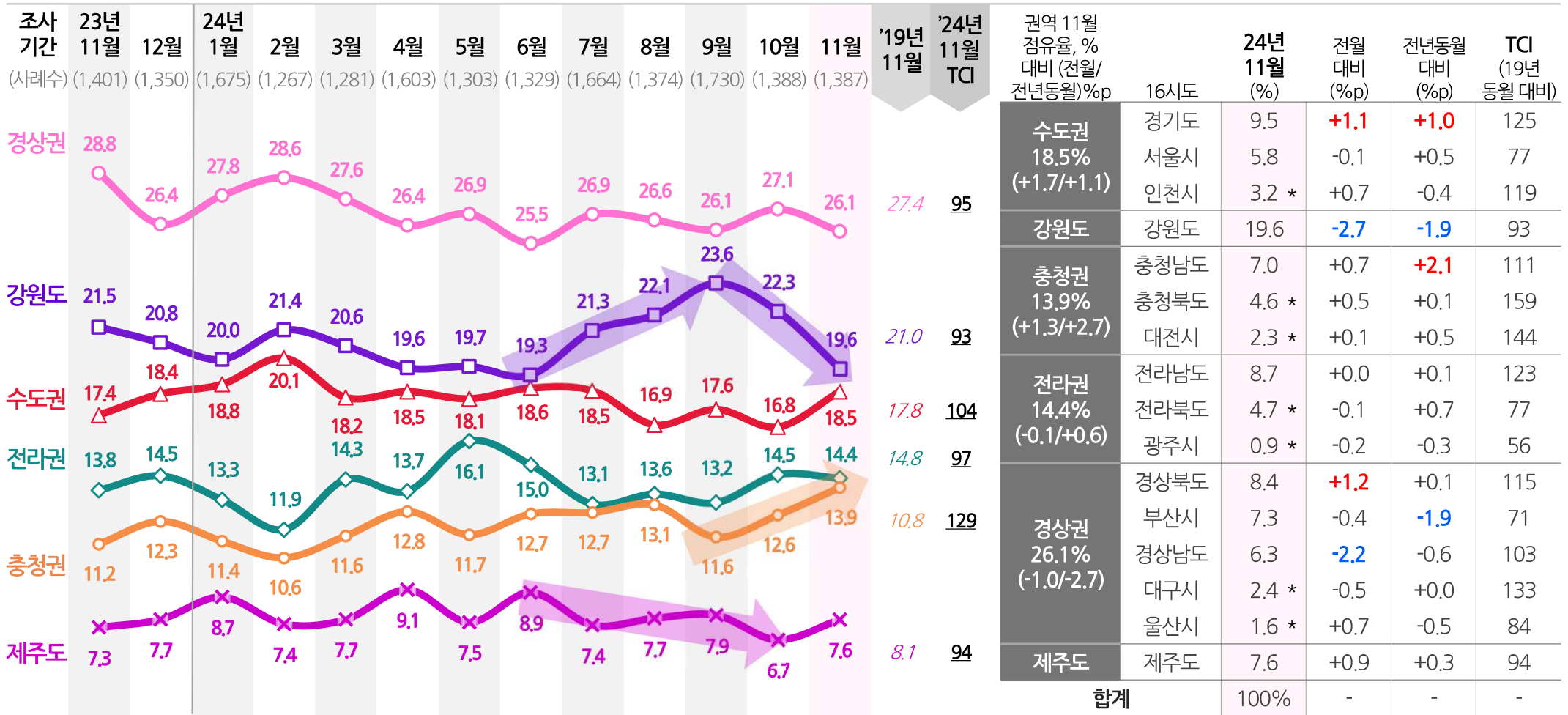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0-1.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국내 숙박여행 지역

- 당월 숙박 여행지 점유율은 '경상권(26.1%)', '강원도(19.6%)', '수도권(18.5%)', '전라권(14.4%)' 순임.
- 여행지 중 '강원도'는 최고 점유율이었던 9월 이후 4%p 감소한 반면, 충청권은 최근 증가해 1년 내 최고점에 이름.
-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충청권만이 증가해(TCI 104, 129) 근거리 여행이 증가했음을 보여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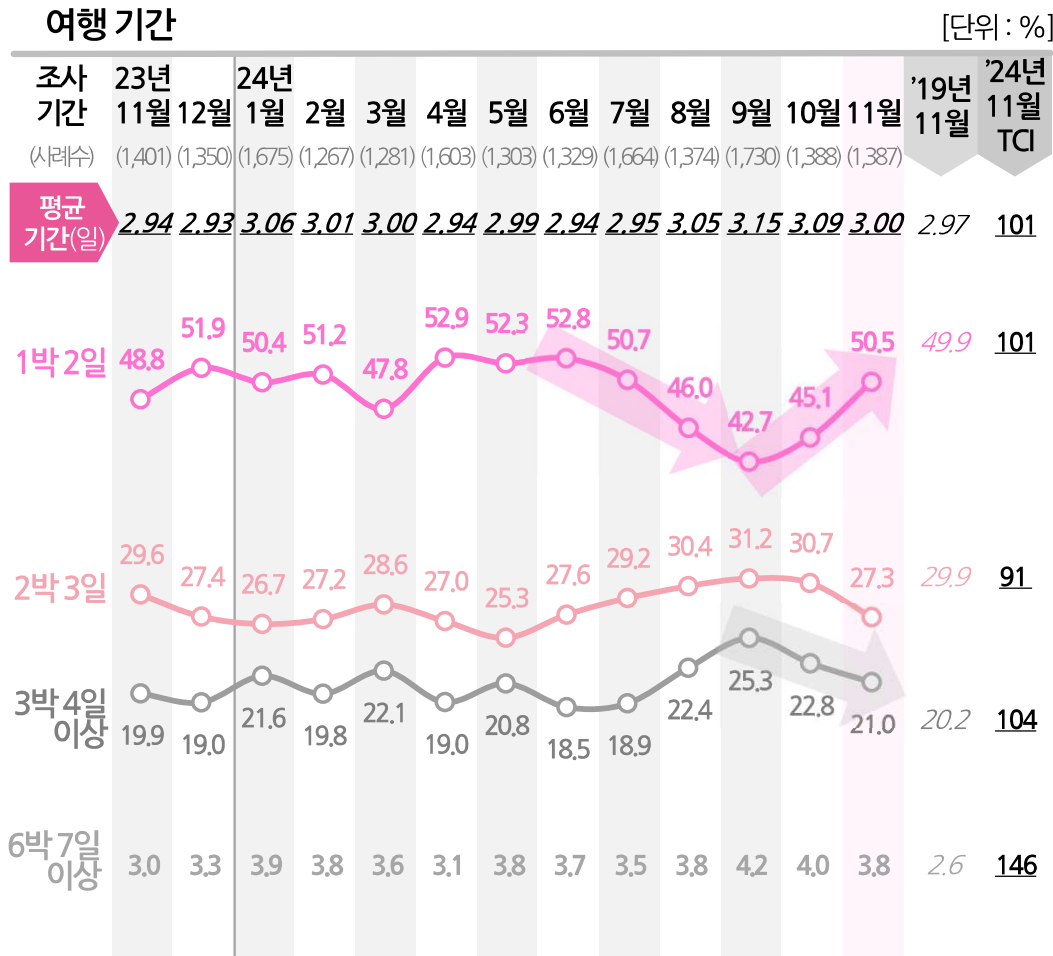


AA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국내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5% 이하 해석에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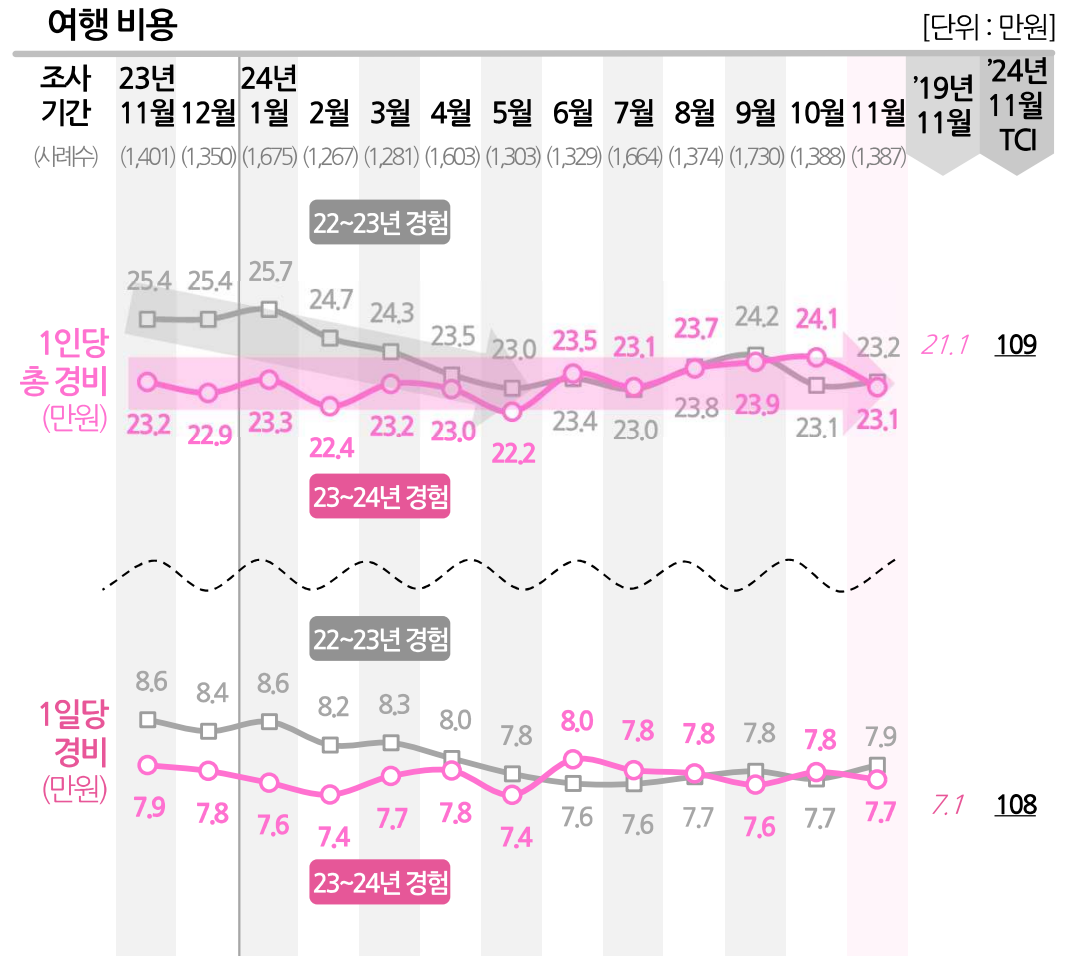
4. 국내 숙박여행 기간 및 비용

- 국내 숙박여행 평균 기간은 3.00일이며, 9월 이후 장기(3박 이상) 여행은 감소한 반면, 1박 2일은 7.8%p 증가함.
- 1인당 총 경비는 23.1만원, 1일당 경비는 7.7만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며, TCI는 각각 109, 108에 그쳐 5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비용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음.



AA3-1. 최근에 다녀온 'OO'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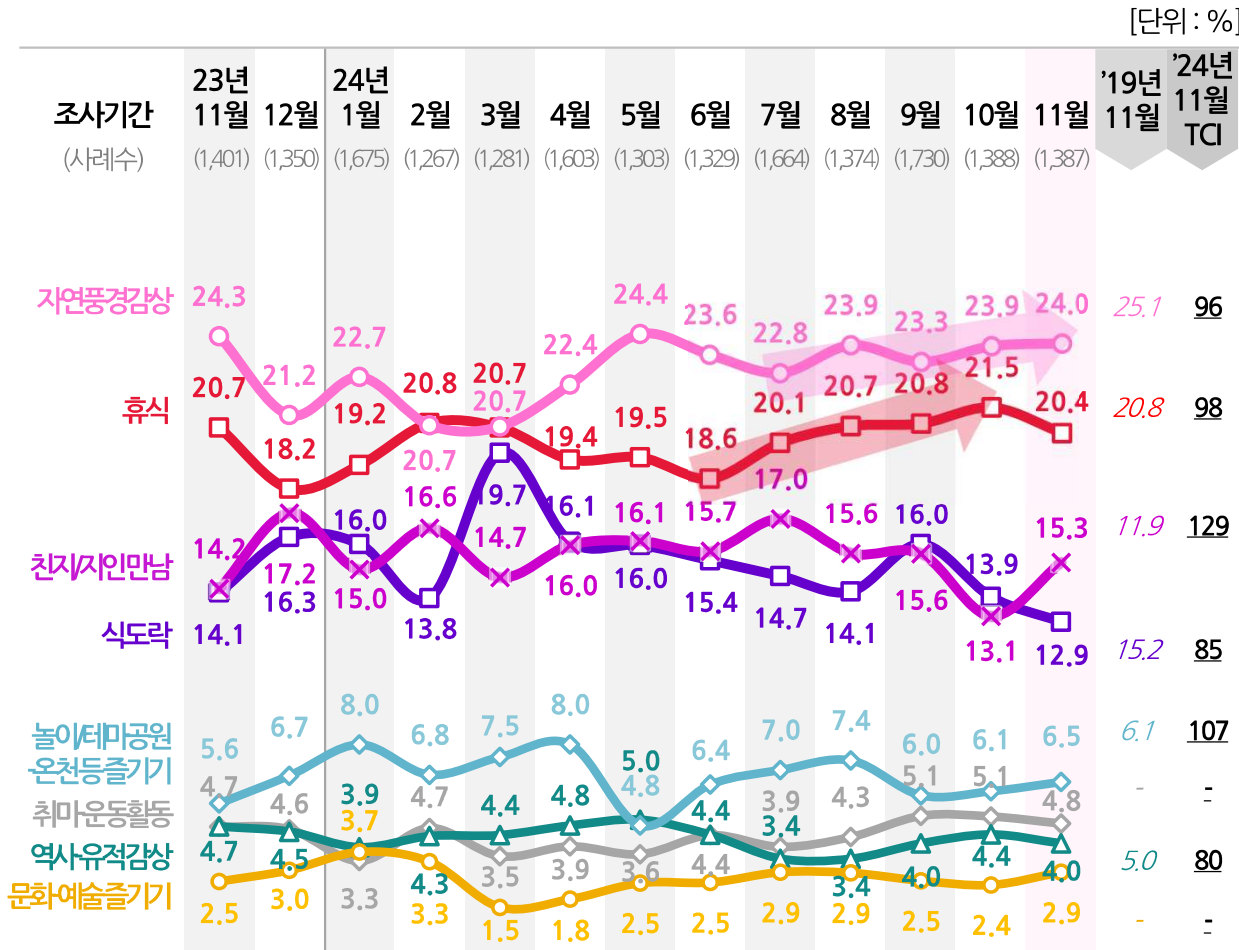
*'24년 2월 부터 여행기간을 밖에서 알로 전환함.



AA17. 'OO' 여행을 위해 1인 기준으로 총 얼마를 지출하셨습니다가?

5. 국내 숙박여행 주 활동

- 국내여행의 주 활동은 ‘자연풍경감상(24.0%)’, ‘휴식(20.4%)’, ‘친구/지인 만남(15.3%)’ 등의 순임.
- ‘자연 풍경 감상’은 △강원도 △제주도가 높고, ‘친지/지인 만남’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행지역별 주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387)	(256)	(193)	(362)	(199)	(271)	(106)
자연 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4.0	11.7▽	25.9	17.1▽	26.2	37.6▲	34.9▲
휴식	20.4	20.3	21.2	21.2	18.6	21.0	18.9
친지/친구/친척 만나기	15.3	25.4▲	17.6	16.0	16.6	6.6▽	3.7▽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2.9	9.4	11.4	11.6	15.5	15.9	16.1
놀이/테마공원 온천 등 즐기기	6.5	6.2	5.2	8.9▲	3.0▽	5.2	11.3▲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4.8	3.9	5.7	4.1	6.5	4.4	5.7
역사 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4.0	4.3	5.7	5.8▲	4.0	0.7▽	2.8
문화-예술 즐기기 (미술관, 공연 등)	2.9	8.6▲	1.0	2.2	1.0	1.1	2.8

AA15-2. 'OO' 여행을 다녀온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요).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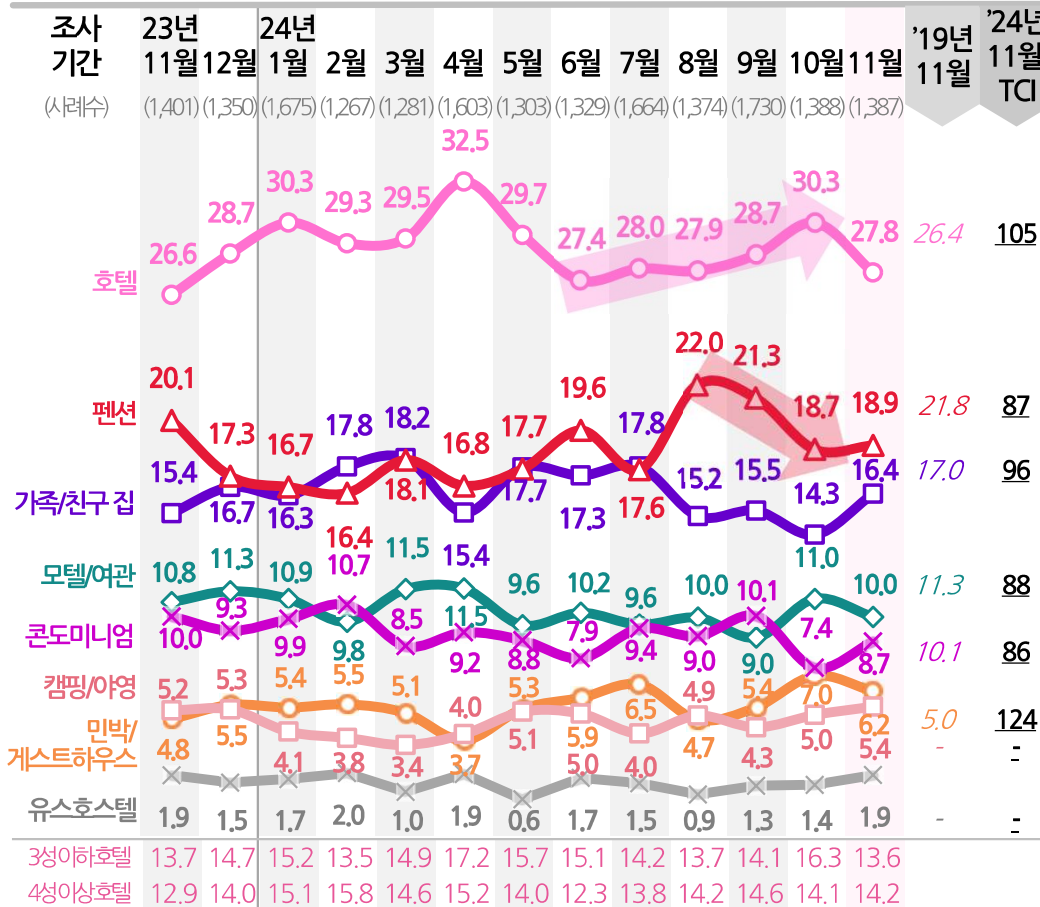
* ▲▽ 표시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p<0.05)

6. 국내여행 숙박 장소 및 선택 이유

- 국내여행 숙박 장소는 ‘호텔(27.8%)’, ‘펜션(18.9%)’, ‘가족/친구 집(16.4%)’ 순임.
- 숙소 선택 시 ‘관광지 접근성 및 교통편’, ‘숙박 비용’, ‘숙박 시설 주변 환경/경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숙박 비용은 TCI 139로 중요도가 높아진 유일한 선택 이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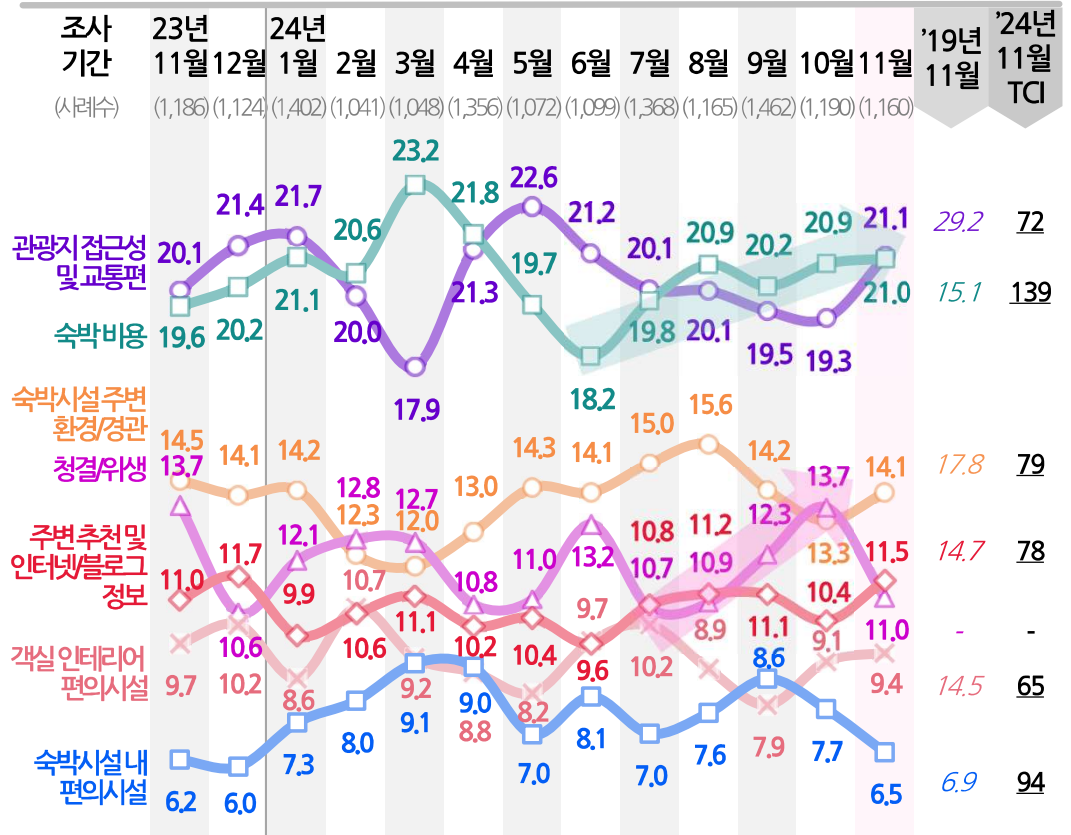
국내여행 숙박행태

[단위: %]



숙박업소 선택 이유

[단위: %]



* 사례수 1,160명, 가족/친구집 제외

AA10. 'OO'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셨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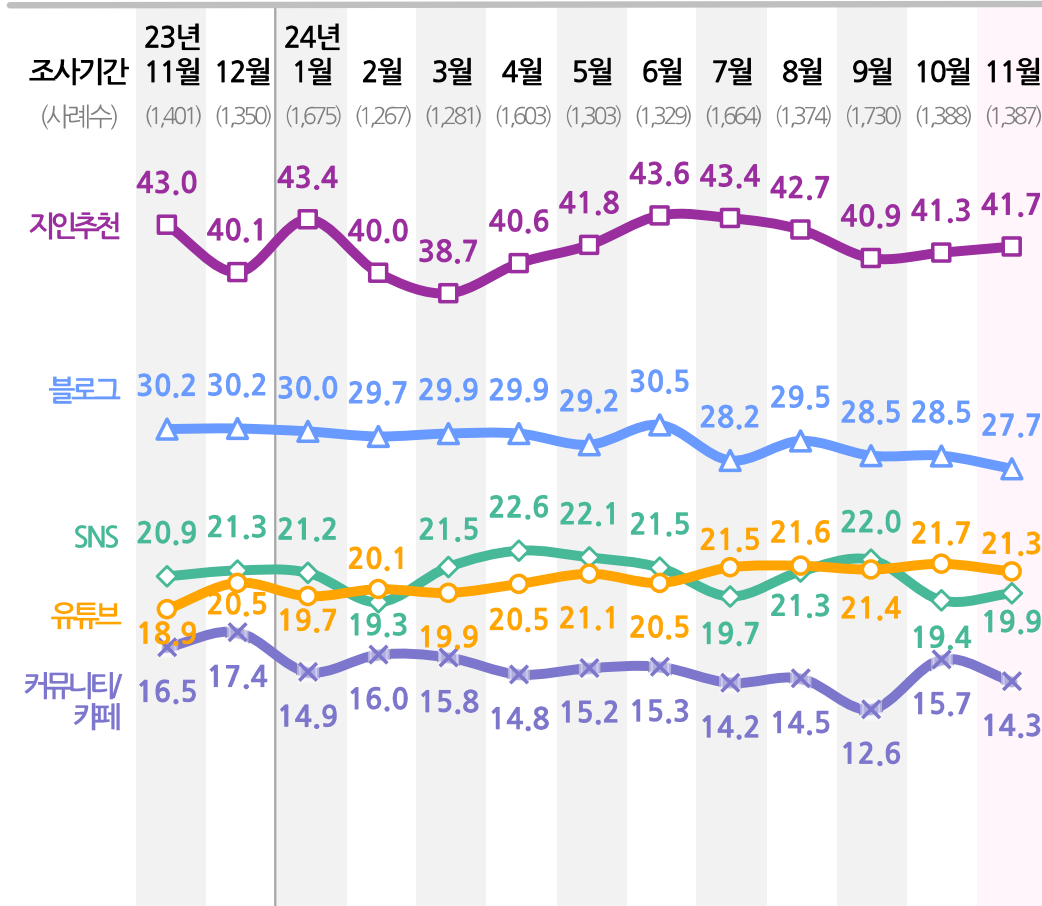
AA11-1. 이용하신 숙박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7. 국내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 국내 여행지 정보 탐색 시 '지인 추천, 블로그, 유튜브, SNS' 순으로, 'SNS/커뮤니티 정보채널'의 활용도가 높음.
- 공식적, 상업적인 정보 사이트/앱은 국내 여행지 선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음.
- '유튜브'는 10월 이후 'SNS' 대비 활용 정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블로그'는 전년 대비 2.5%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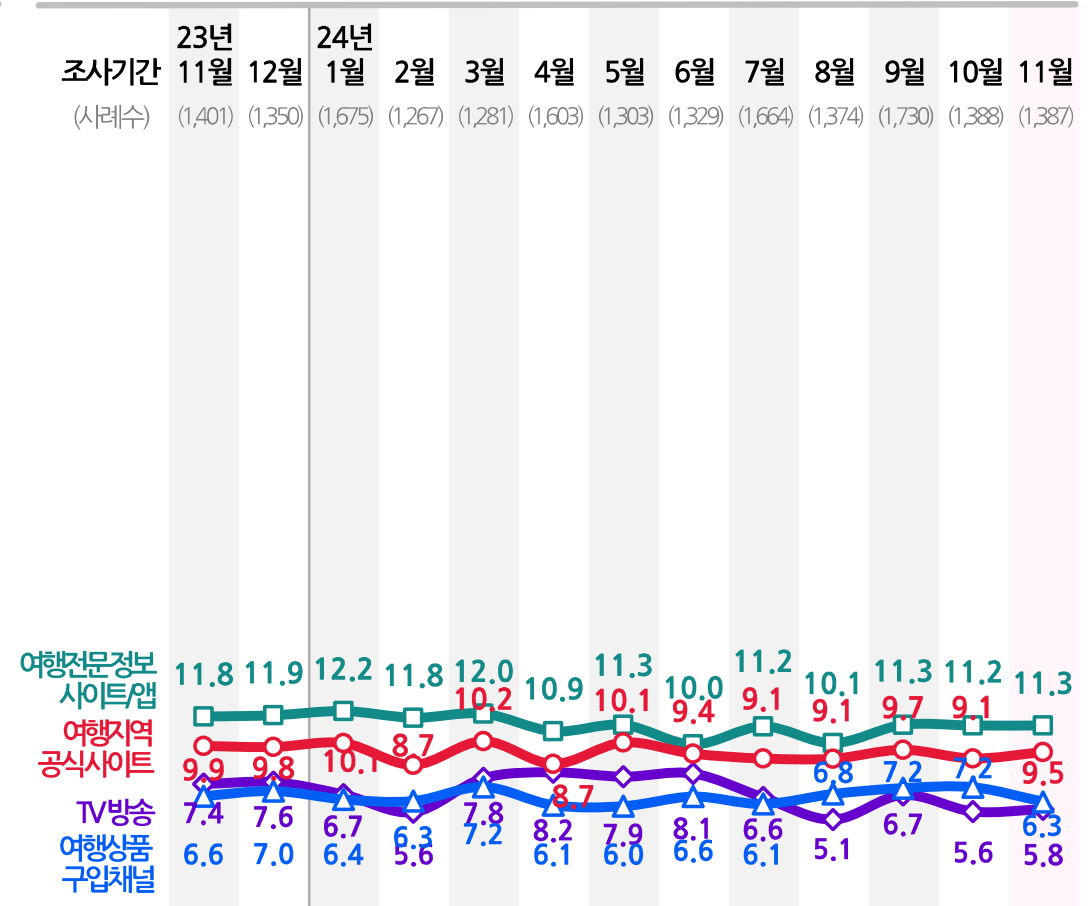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공식/상업 정보채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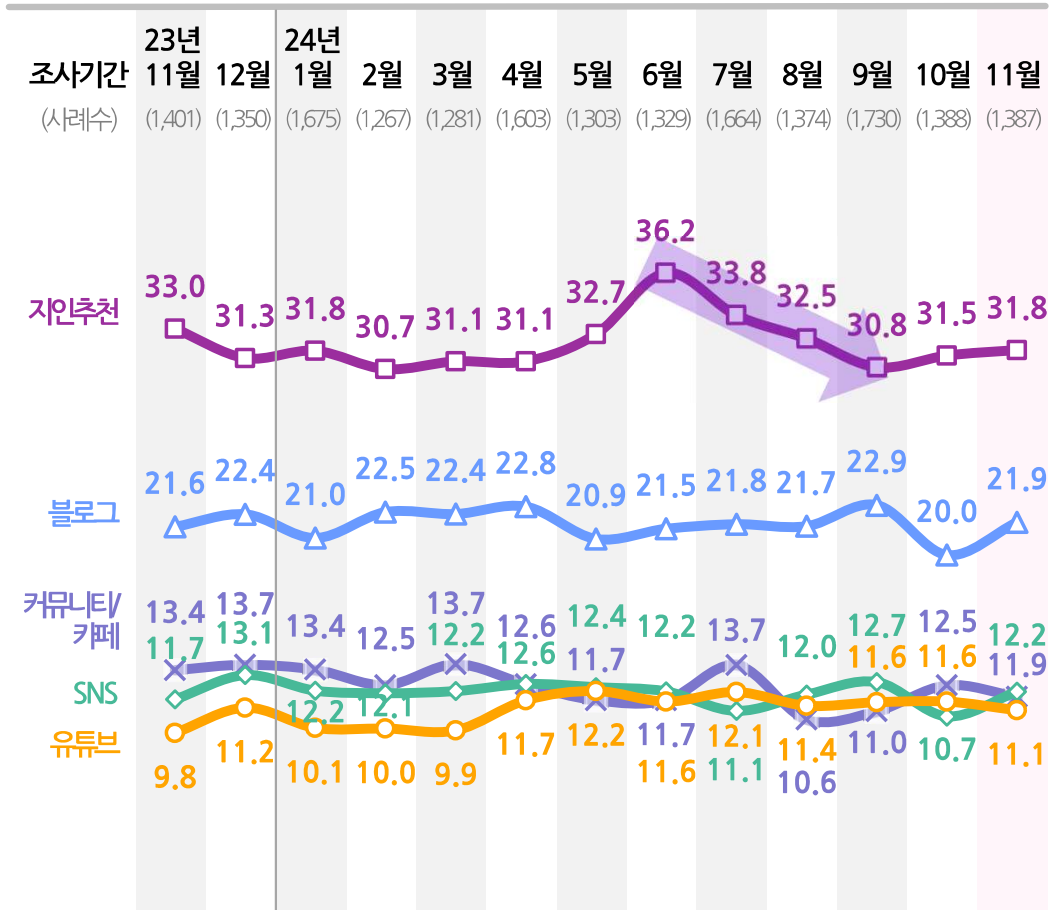
AA2-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행지 결정 시)

8. 국내여행 숙소 정보탐색

- 국내여행 숙소 정보 탐색은 '지인 추천(31.8%)', '블로그(21.9%)', '여행상품 구입채널(20.0%)' 순임.
- 공식/상업적 정보채널은 '여행지'에 비하면 '숙소' 관련 정보 탐색 시 활용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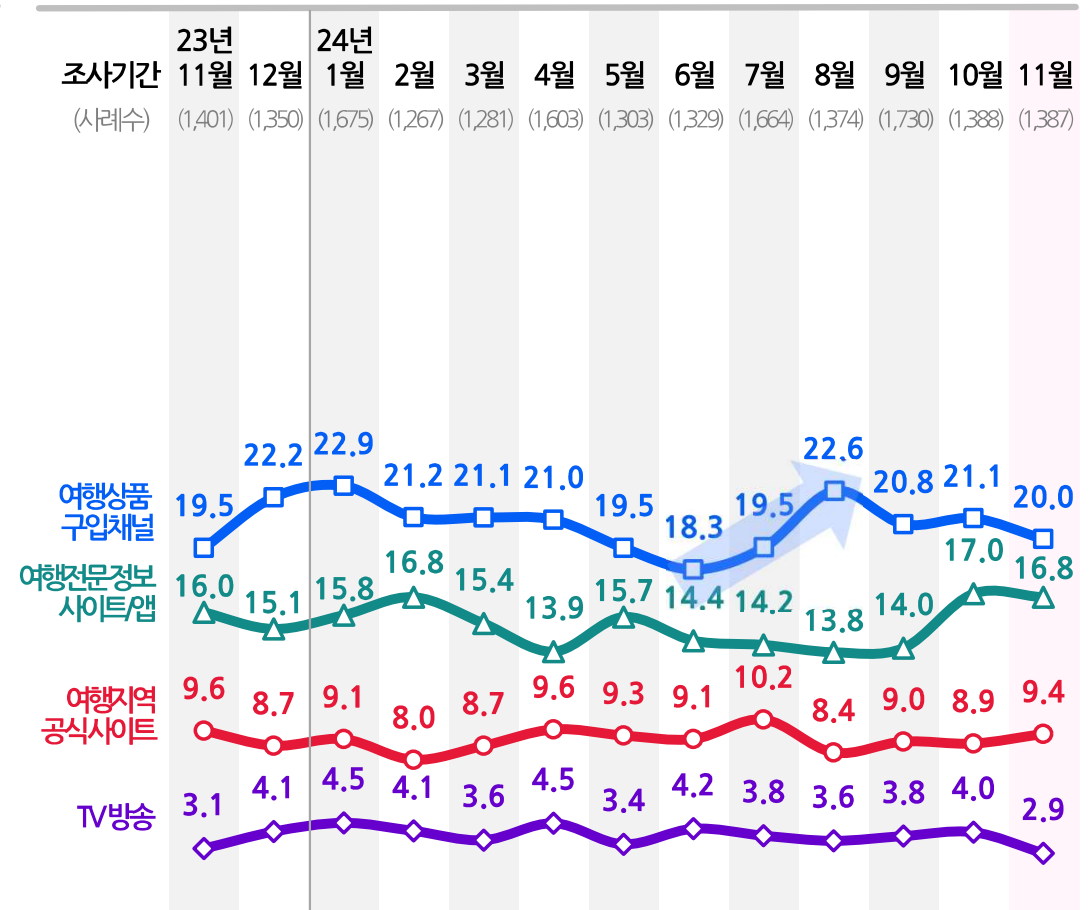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공식/상업 정보채널

[단위: %]



AA3-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숙소)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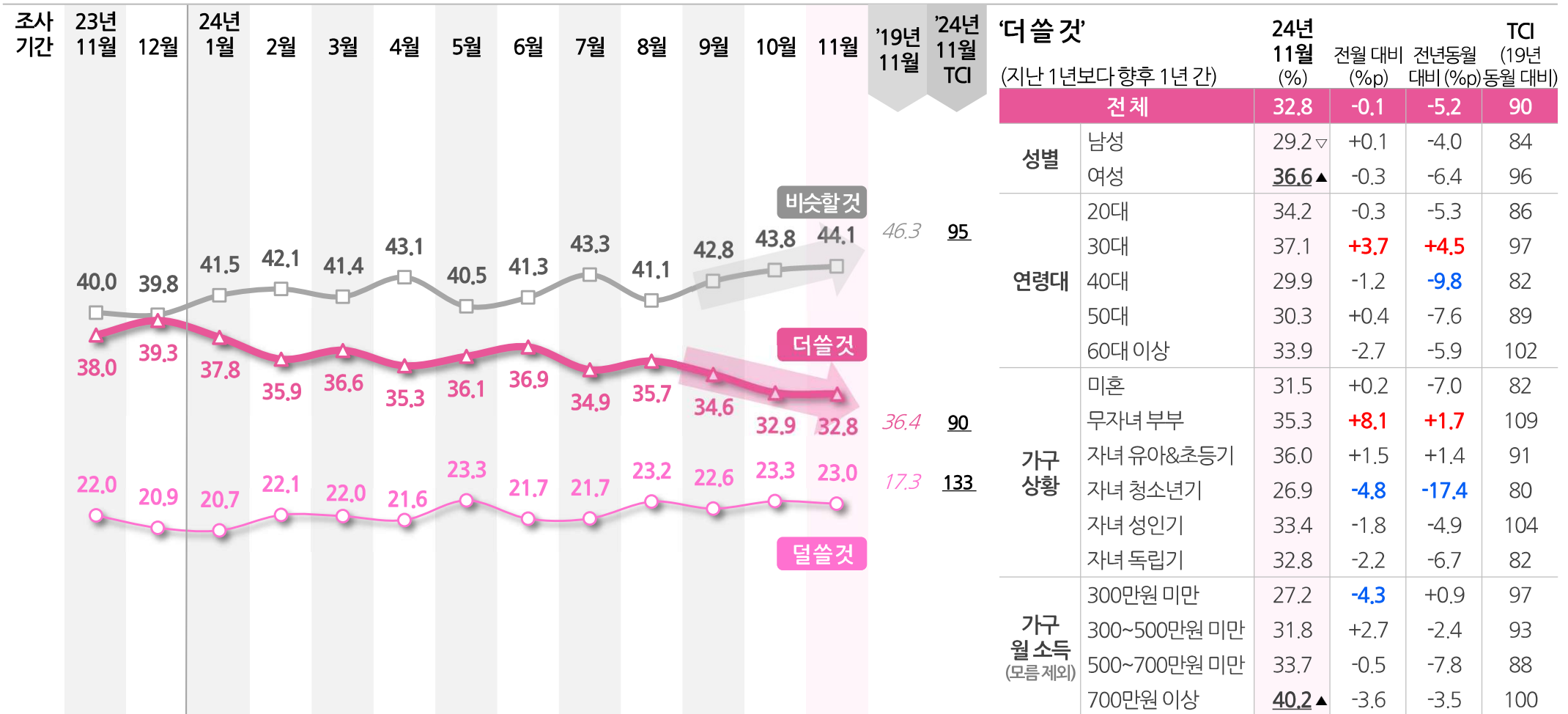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국내 여행비 지출 의향 (향후 1년)

- 국내 여행비 지출 의향(향후 1년간, 지난 1년에 비해)은 ‘비슷할 것’ 44.1%, ‘더 쓸 것’ 32.8%, ‘덜 쓸 것’ 23.0% 순임.
- 인구특성별로는 △여성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여행비 지출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작년 동기와 비교 시 ‘더 쓸 것’은 5.2%p 감소, ‘비슷할 것’은 4.1%p 증가해 지출 축소가 계속되고 있음.
- 코로나 전과의 비교(TCI)에서도 ‘덜 쓸 것’ 증가(133), ‘더 쓸 것’ 감소(90)가 뚜렷해 국내 여행시장의 위축이 계속될 것을 보여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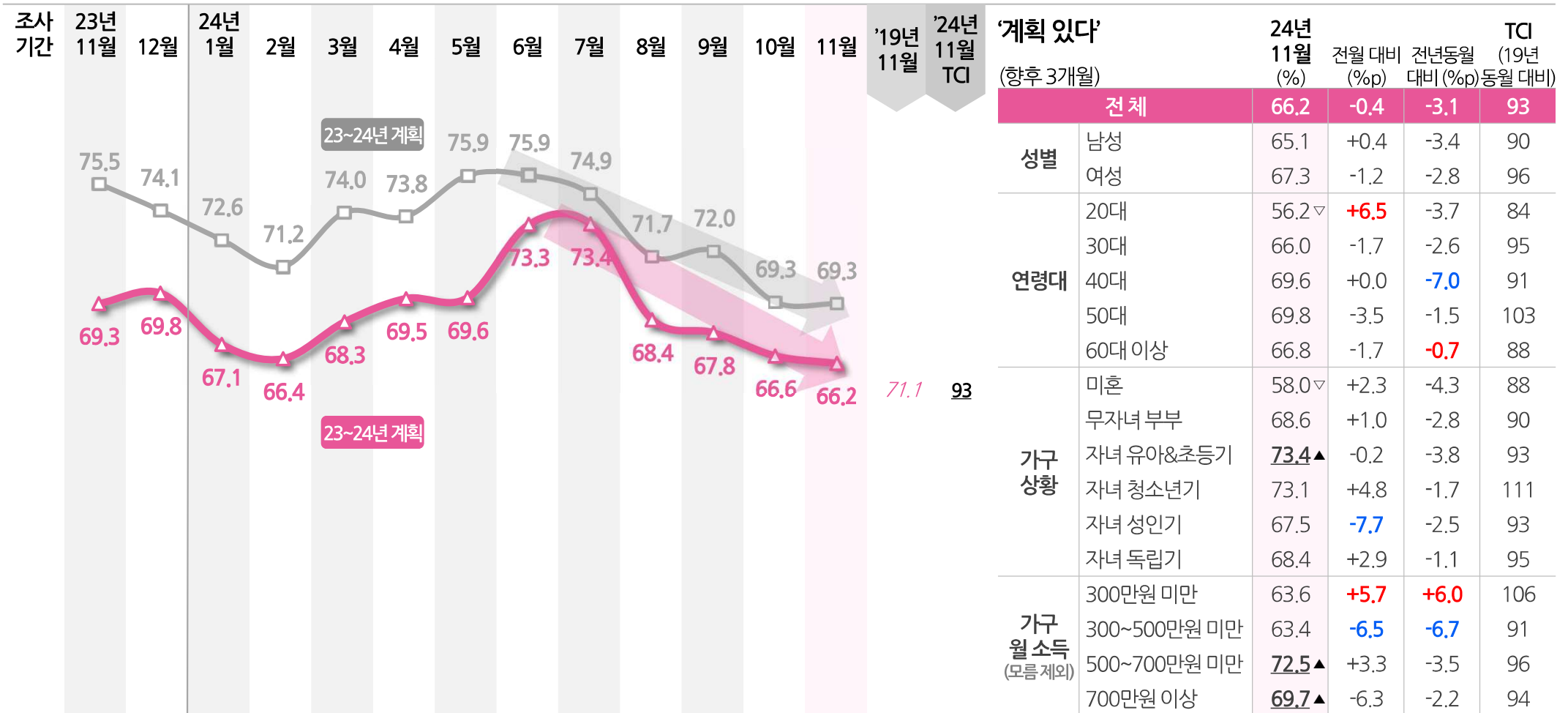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3. 국내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 (향후 3개월)

- 국내 숙박여행 계획률(3개월 이내)은 66.2%로, 지난 1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1%p 낮고, 코로나 전 대비 4.9%p 낮아(TCI 93) 여행률의 감소가 예측됨.
- 인구특성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계획률이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으며, 특히 △40대의 감소가 가장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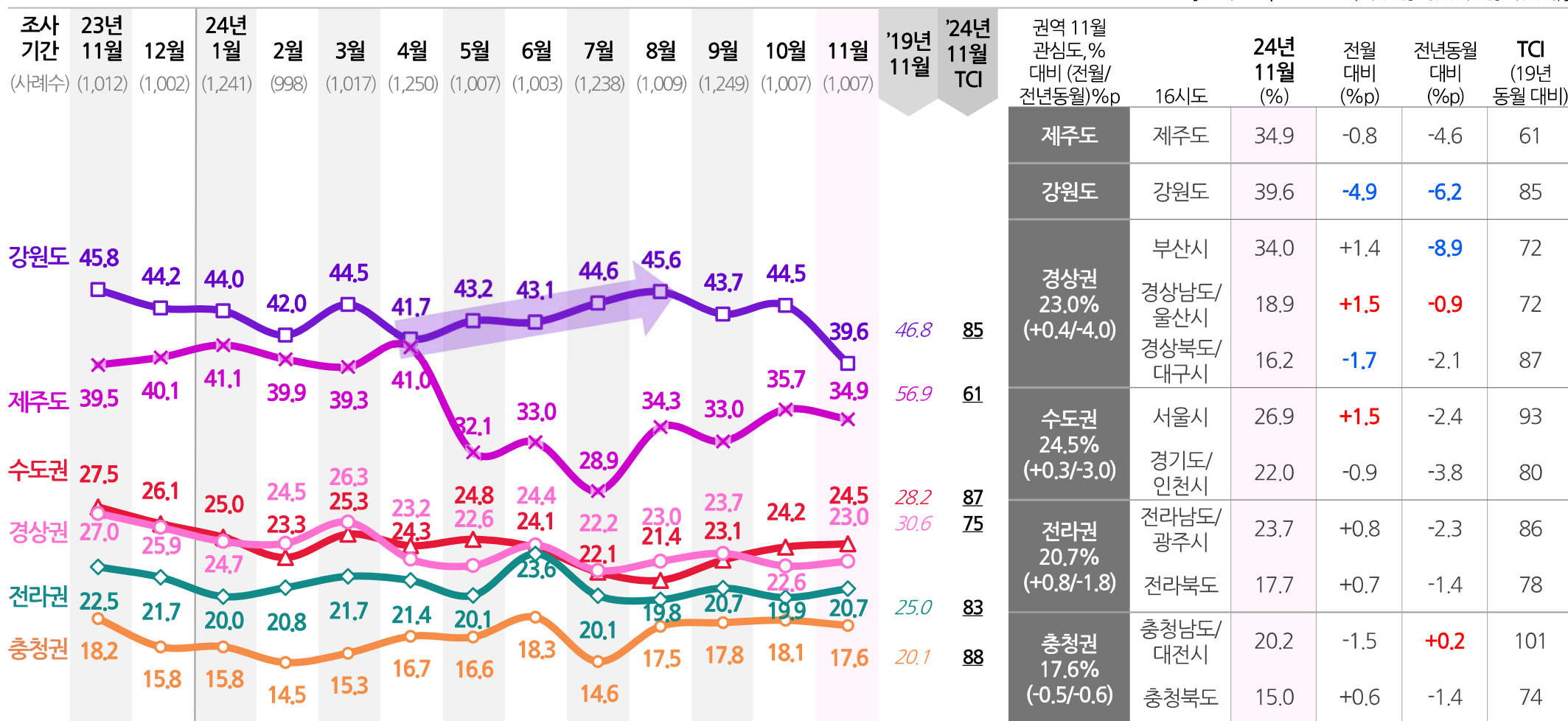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국내 여행지 관심도(가보고 싶다는 생각)

- 국내 여행지 관심도는 ‘강원도(39.6%)’, ‘제주도(34.9%)’, ‘수도권(24.5%)’의 순임.
- 작년 동기에 비해 6개 광역 모두가 감소세를 보여 여행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며, 그 감소폭은 강원도, 제주도, 경상권(각각 -6.2%p, -4.6%p, -4.0%p) 순으로 큼.
- 코로나 이전 대비 모든 국내 여행지의 관심도는 TCI 90미만이었으며, 특히 제주도는 TCI 61로 가장 감소폭이 큼(-22.0%p).

[단위 : Top2 box%(매우 많아졌다+많아졌다)]



SQ2-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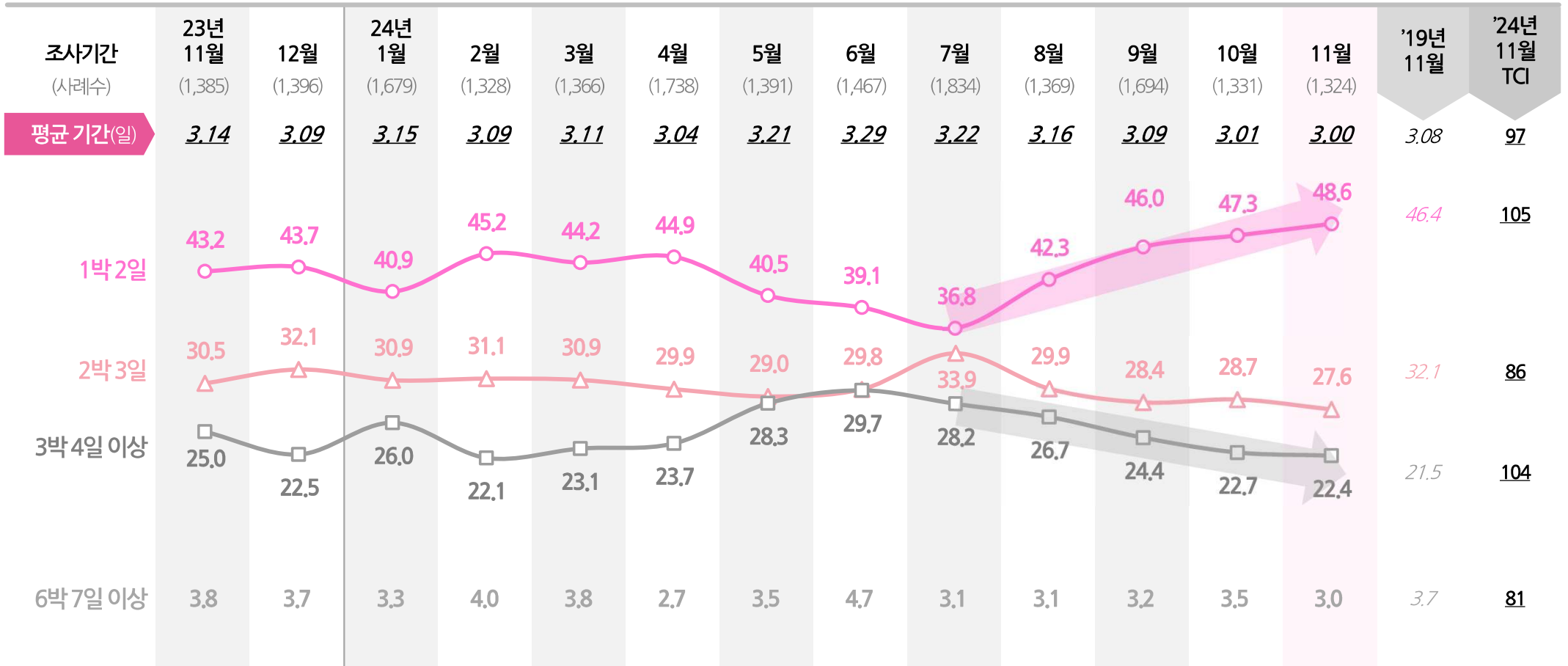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시도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5. 국내 숙박여행 계획 기간

- 국내 숙박여행 계획 기간은 평균 3.00일로 지난 1년 내 최단기이며, 작년 동기에 비해 0.14일, 코로나 전에 비해 0.08일 감소한 수준임. ^{21/40}
- '1박 2일'은 48.6%로 전년 동기에 비해 높은 반면(+5.4%p), 2박 3일, 3박 4일 여행은 감소하였음(각각 -2.9%p, -2.6%p).
- 평균 기간의 TCI는 97, 1박 2일은 105로 여행의 단기간화가 계속되고 있음.

계획 중인 여행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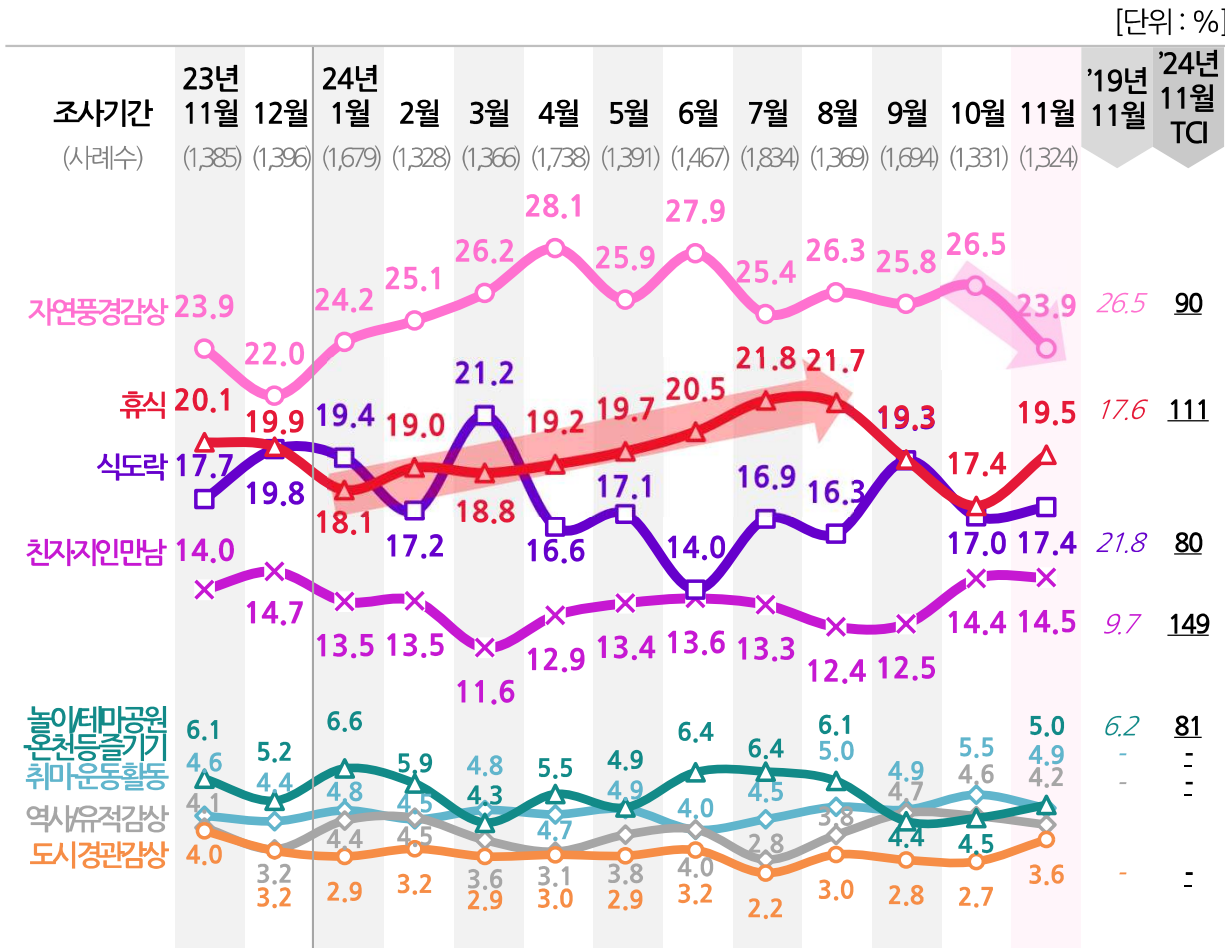


A3-1. 계획하고 계신 'OO'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2월 부터 여행 기간을 밖에서 알로 전환함.

6. 국내 숙박여행 계획 활동

- 계획 중인 숙박 여행의 주 목적은 ‘자연풍경감상(23.9%)’, ‘휴식(19.5%)’, ‘식도락(17.4%)’ 순임.
- 코로나 이전 대비 ‘친지/지인 만남’은 크게 증가하고(TCI 149), ‘식도락’은 크게 감소해(TCI 80) 지출을 억제하려는 경향을 보여줌.
- ‘자연 풍경 감상’은 제주도, 강원도, 전라권이 높고, ‘휴식’ 활동은 제주도의 계획률이 높음.



▶ 여행지역별 주 계획 활동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도	제주도
(사례수)	(1,324)	(221)	(134)	(334)	(192)	(292)	(151)
자연 풍경 감상 (산, 바다 등)	23.9	10.8▽	17.9	21.3	30.2▲	31.5▲	31.8▲
휴식	19.5	20.0	17.1	18.5	16.7	18.8	28.4▲
식도락 (지역 특색/제철 음식)	17.4	10.4▽	20.9	18.6	19.2	18.5	17.2
친지/친구/친척 만나기	14.5	23.5▲	19.6	17.4	13.6	7.6▽	4.6▽
놀이/테마공원/온천 등 즐기기	5.0	6.8	2.2	3.9	3.1	7.5▲	5.3
취미/운동 활동 (등산, 낚시, 골프 등)	4.9	2.7	6.0	3.3	7.3	6.5	4.7
역사/유적 감상 (유적지, 박물관 등)	4.2	4.1	6.0	6.9▲	2.6	2.8	2.0
도시 경관 감상 (건축물, 거리 등)	3.6	4.5	3.7	4.5	3.7	2.4	2.7

A4-3. 여행을 하고자 하는 주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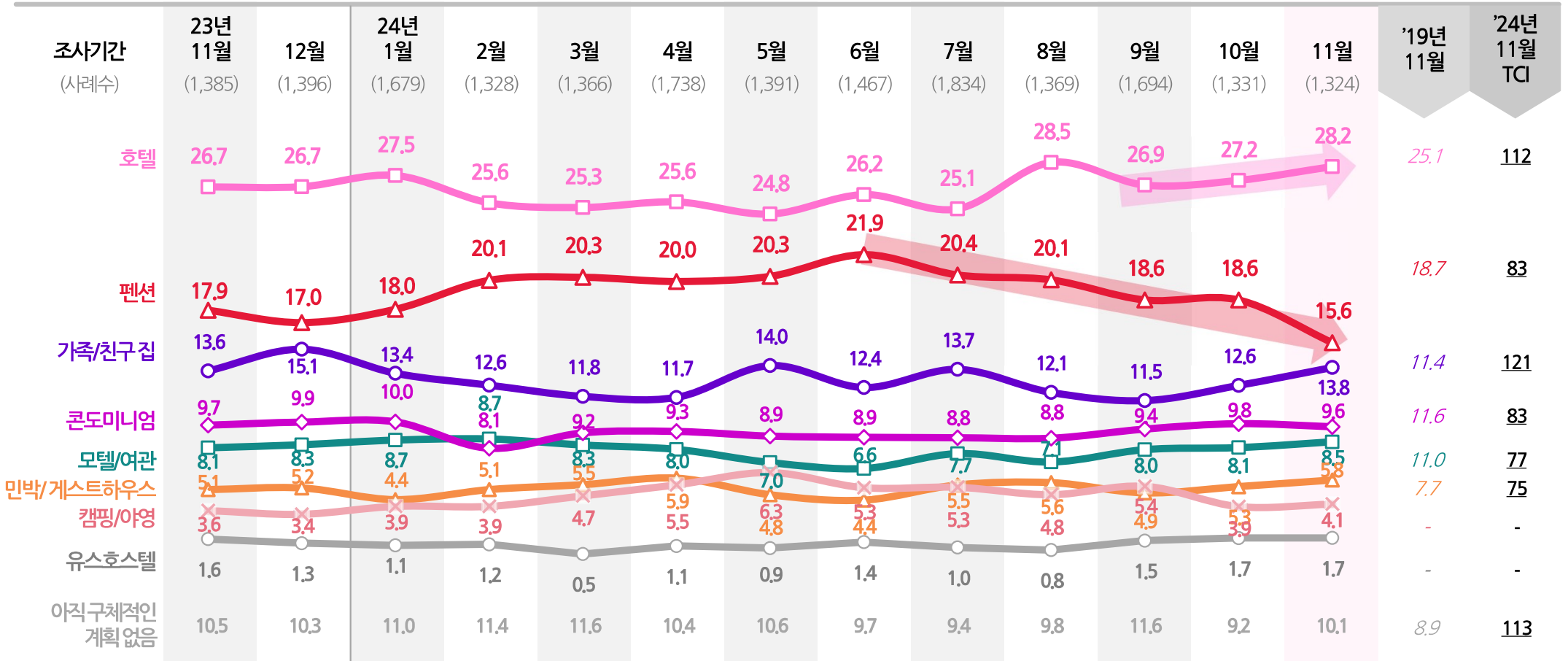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7. 국내여행 숙박 예정 장소

- 국내여행 숙박 예정 장소는 ‘호텔(28.2%)’과 ‘펜션(15.6%)’, ‘가족/친구 집(13.8%)’ 순임.
- 숙박 예정 장소 중 ‘호텔’의 상승세인 반면, ‘펜션’은 계절적 요인으로 6월 이후 계속된 감소함.
- 코로나 이전 대비 호텔(TCI 112), 가족/친구 집(TCI 121)의 점유율이 증가함.

국내여행 숙박 예정 장소

[단위: %]



A10. 여행지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서 숙박하실 계획이십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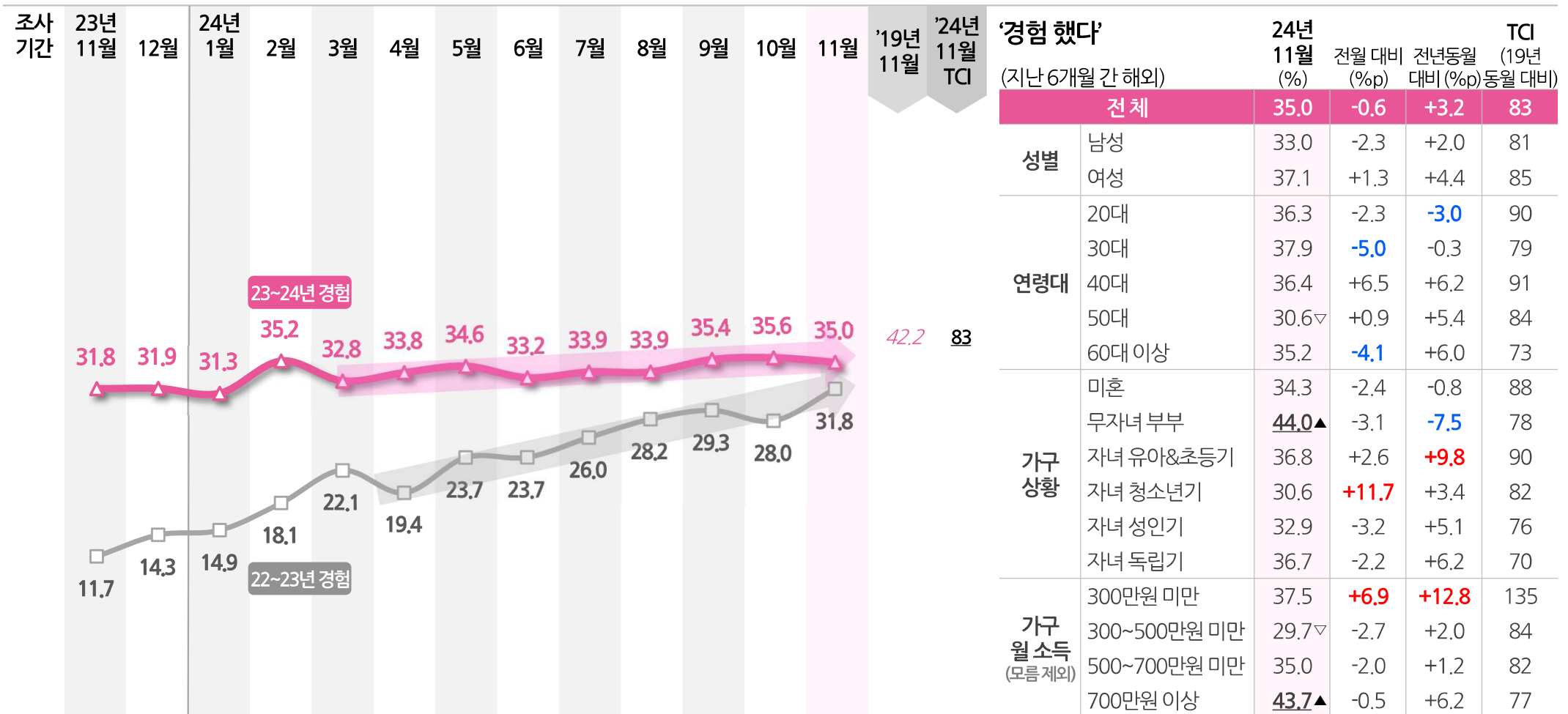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여행 경험률 (지난6개월)

- 해외여행 경험률은 급격한 상승세로 작년 동월 30%대를 돌파한 이후 31~36%의 박스권에 갇혀 있으며, 코로나 이전 수준에 크게 뒤진 상태에 머물고 있음(TCI 83).
- 현재로는 당분간 코로나 이전 수준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인구특성별로는 △무자녀 부부와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 해외 여행 경험률이 높음.

[단위: %]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4-0.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SQ4-0-1. 그렇다면, 지난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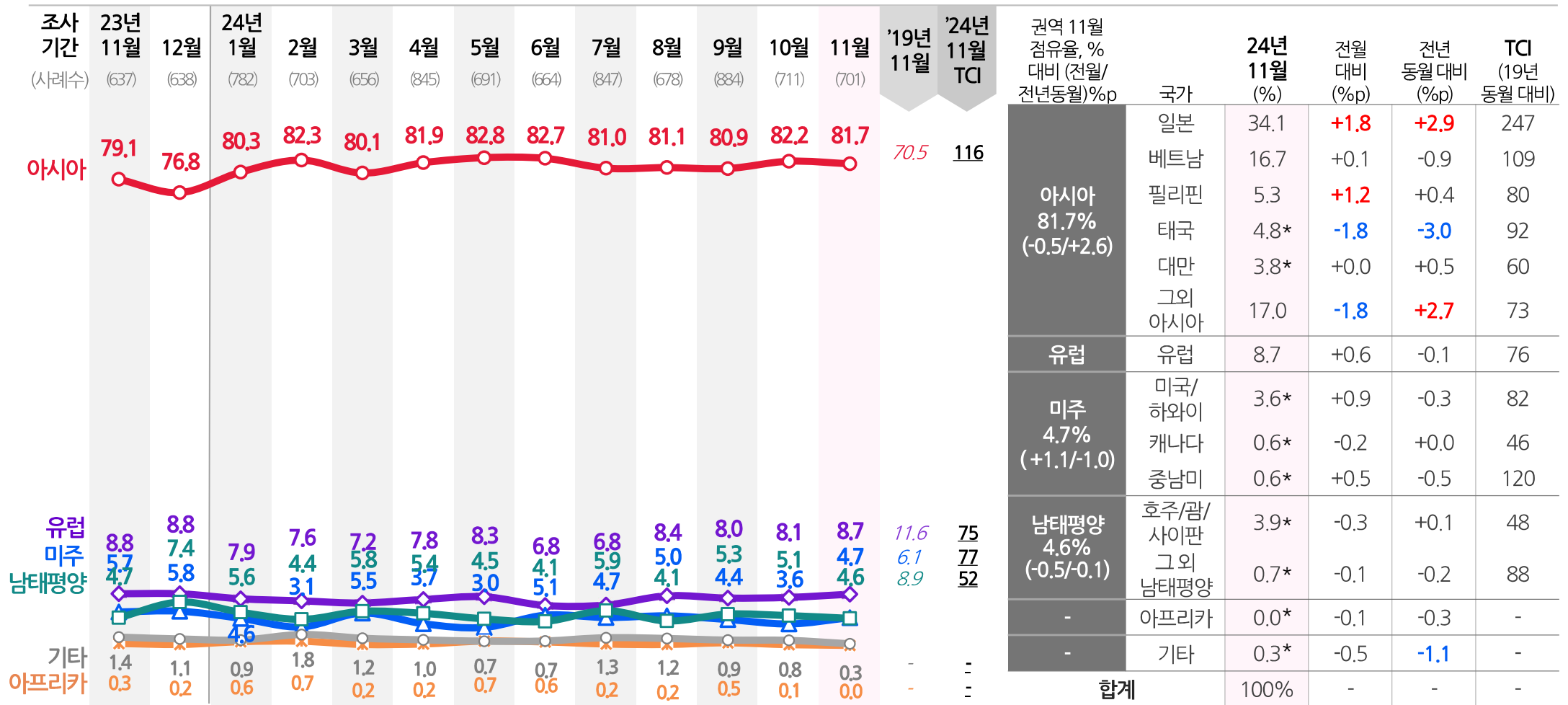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해외여행 지역 (지난 6개월)

- 지난 6개월 내 경험한 해외여행 지역은 ‘아시아(81.7%)’, ‘유럽(8.7%)’, ‘미주(4.7%)’ 순임.
- 여행지 중 아시아만이 유일하게 코로나 이전 대비 경험률이 증가했음(+11.2%p, TCI 116).
특히, 일본은 전년 동월 대비 2.9%p 증가하고, 코로나 이전 대비 경험률이 2.5배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음(TCI 247). 이는 '19년 하반기의 No Japan 운동의 영향임.

[단위: %]



BB2-1. 가장 최근에 다녀온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주로 여행하신 지역을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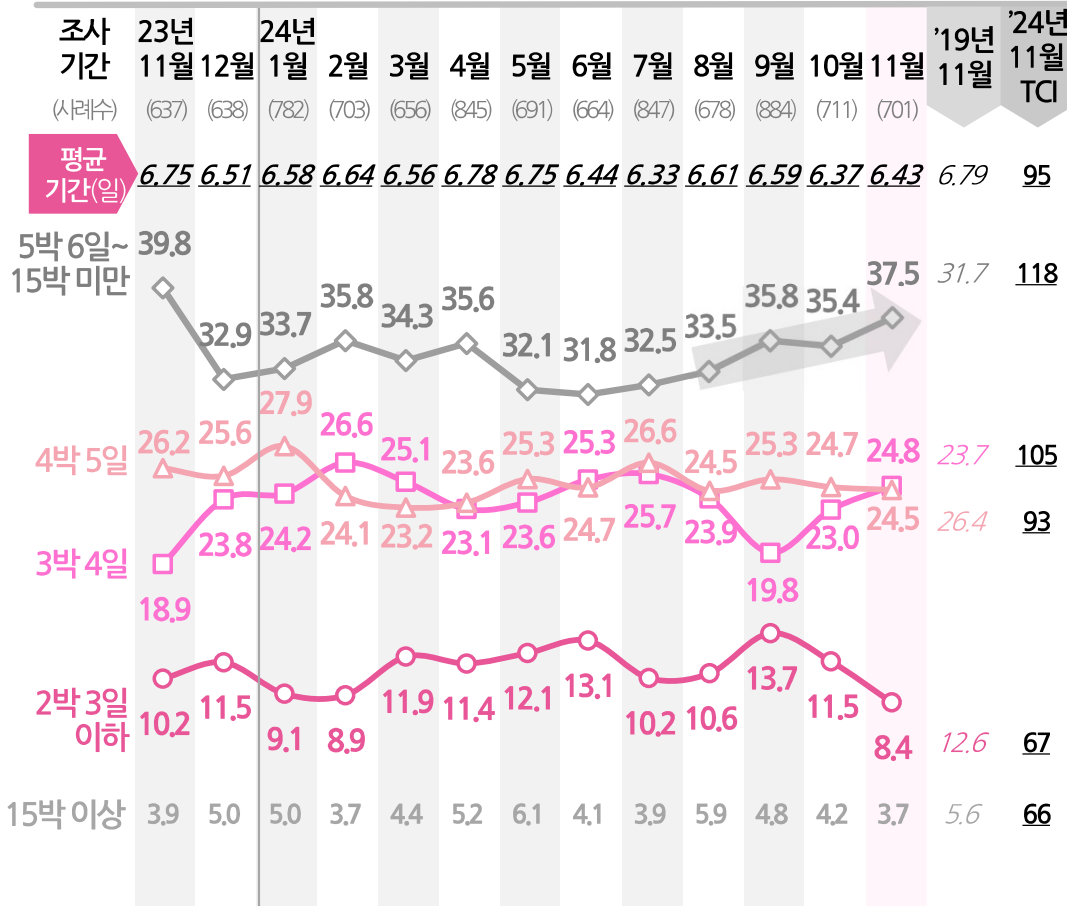
* 5% 이하 해석에 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기간 및 비용

- 해외여행(6개월 이내)의 평균 기간은 6.43일, 비용은 1인당 총 경비 180.5만원, 1일 당 경비 28.1만원임.
-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여행 기간 TCI는 95, 1일당 여행 경비는 TCI 127로 기간은 소폭 줄고, 경비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여행 비용(1인 당 총 경비, 1일당 경비)은 TCI 120 이상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높아짐.

여행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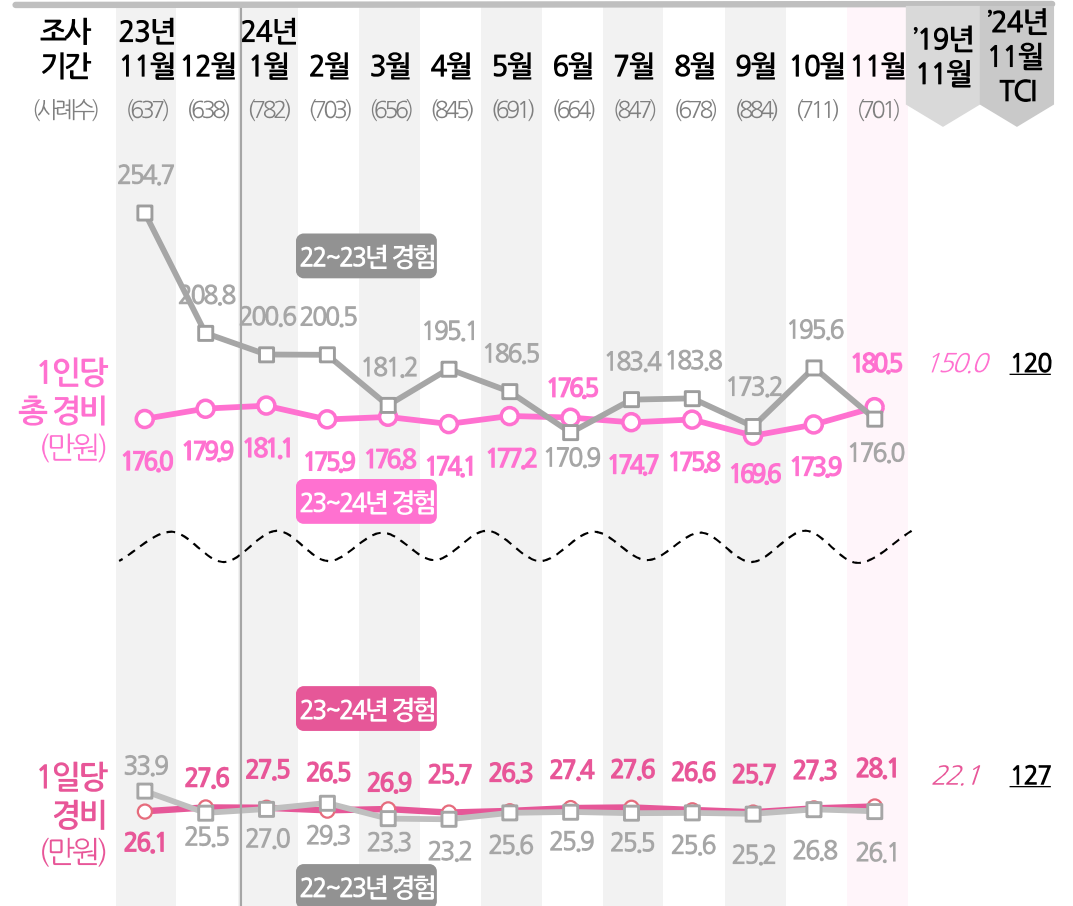


BB5-2. 다녀온 'OO'여행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2월 부터 여행 기간을 밖에서 알로 전환함.

여행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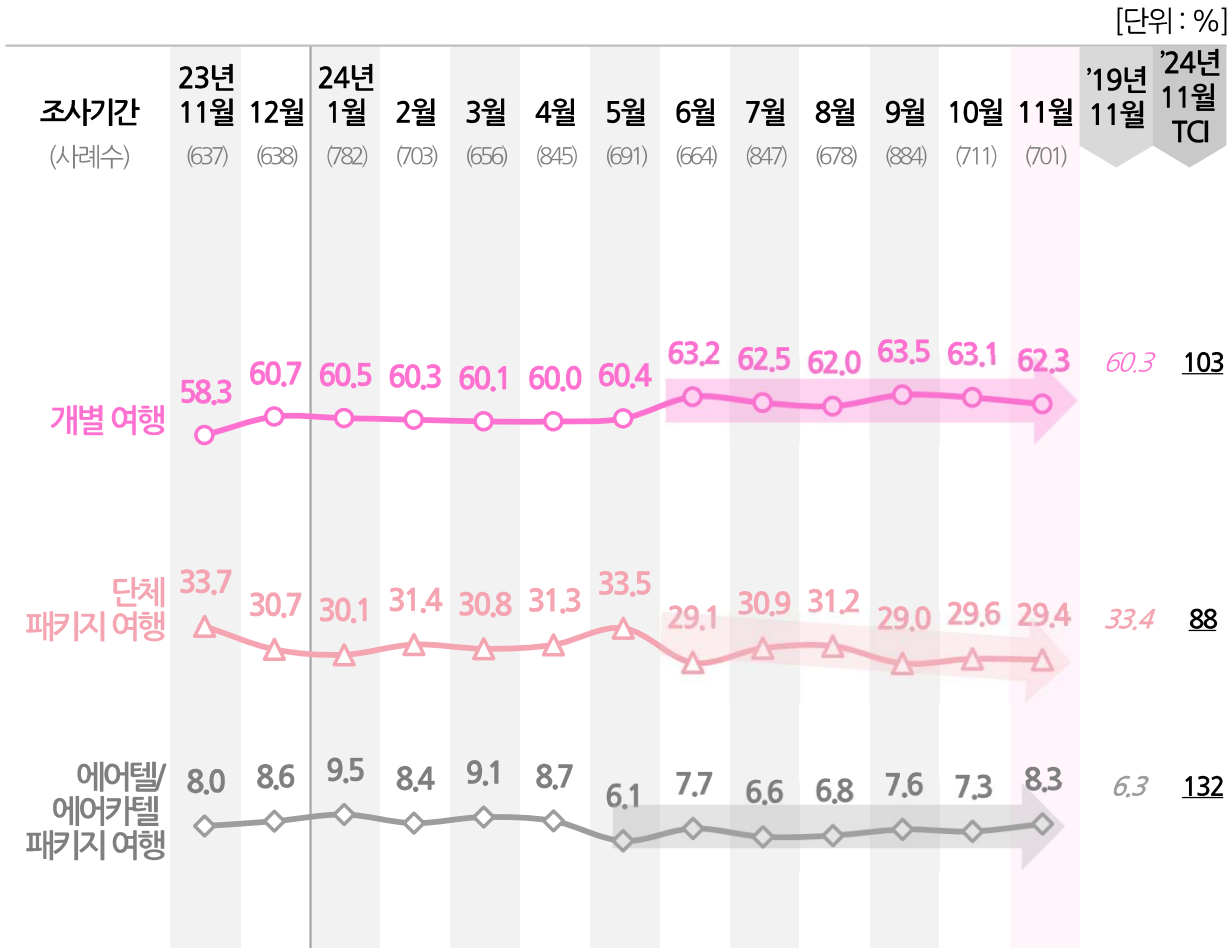
[단위: 만원]



BB16. 'OO' 여행에서 각 부분들을 위해 대략 얼마정도 지출하셨습니다가?

4. 해외여행 형태

-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FIT)’이 62.3%, ‘단체 패키지’는 29.4%,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는 8.3%순임.
- 코로나 전과 비교해 단체 패키지 여행은 감소하고(TCI 88),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는 상당히 증가했음(TCI 132).
- 개별 여행은 ‘아시아’에서, 단체 패키지 여행은 ‘유럽’,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은 ‘남태평양’에서 경험률이 높음.



▶ 여행지역별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701)	(573)	(33)	(61)	(32)	(0)
개별 여행	62.3	65.4▲	75.8	39.3▽	40.7▽	-
단체 패키지 여행	29.4	26.9▽	12.1▽	55.8▲	37.5	-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8.3	7.7	12.2	4.9	21.8▲	-

BB8. 'OO'여행은 어떤 형태로 가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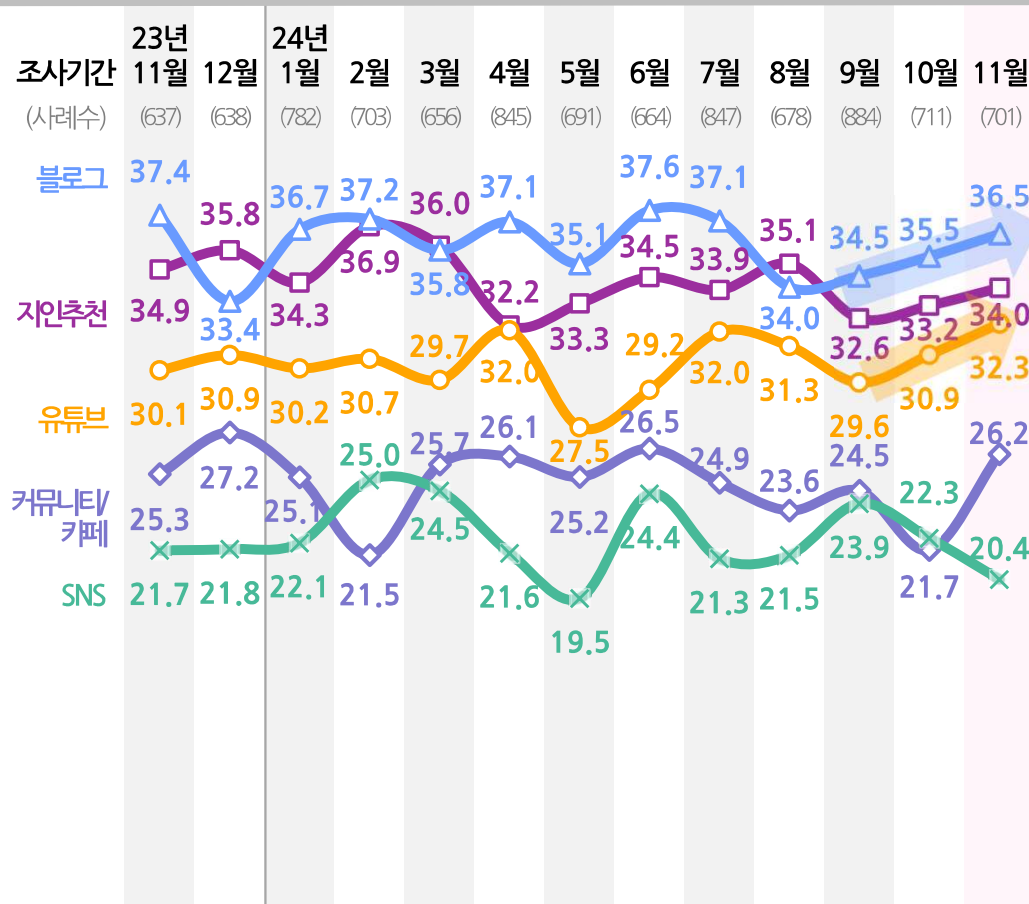
* ▲▽ 표시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p<0.05)

5. 해외여행 여행지 정보탐색

- 해외 여행지 정보 탐색 시 활용 채널 중 모든 'SNS/커뮤니티' 채널이 '공식/상업정보' 채널 보다 높았음. 특히, '블로그', '유튜브'와 '지인 추천'은 최근 3개월 내 지속적으로 활용 정도가 증가함.
- 공식/상업 정보채널은 '여행 전문 정보 사이트/앱(19.6%)', '여행상품 구입채널(18.8%)', 'TV방송(10.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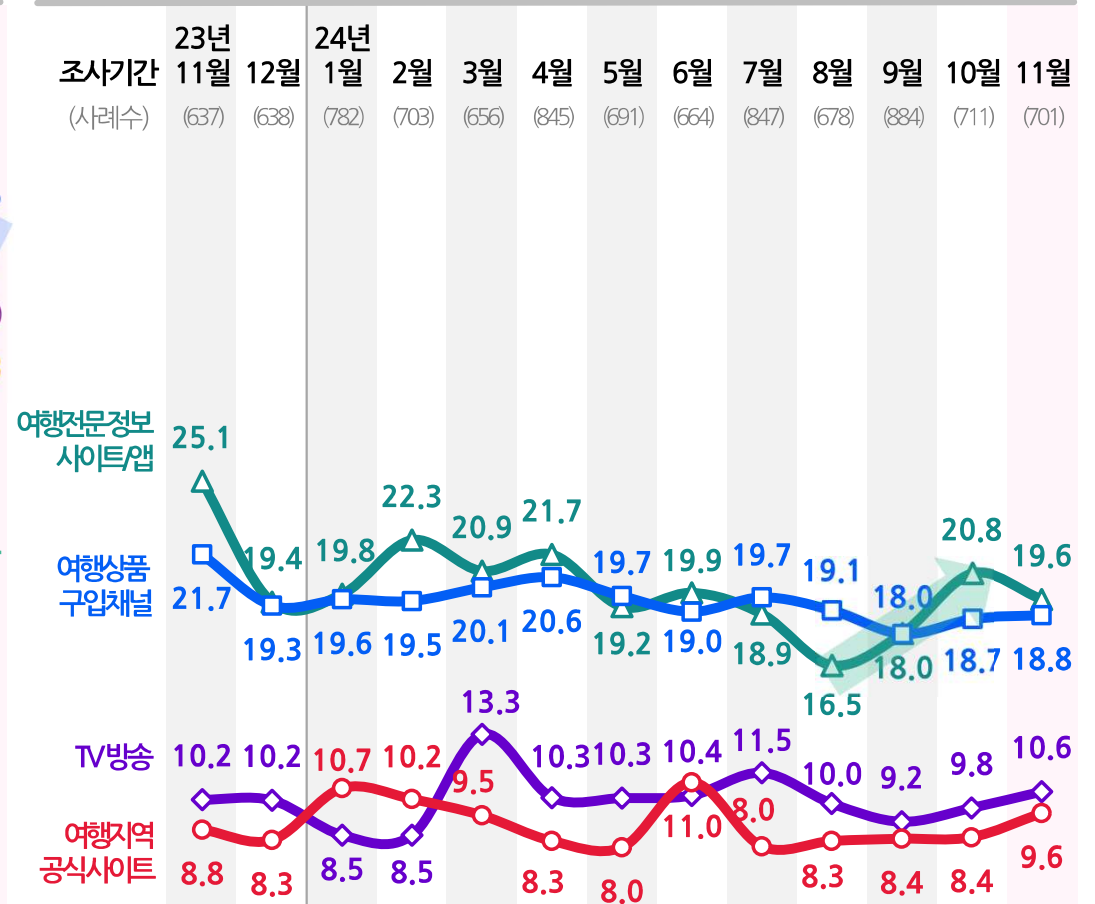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공식/상업 정보채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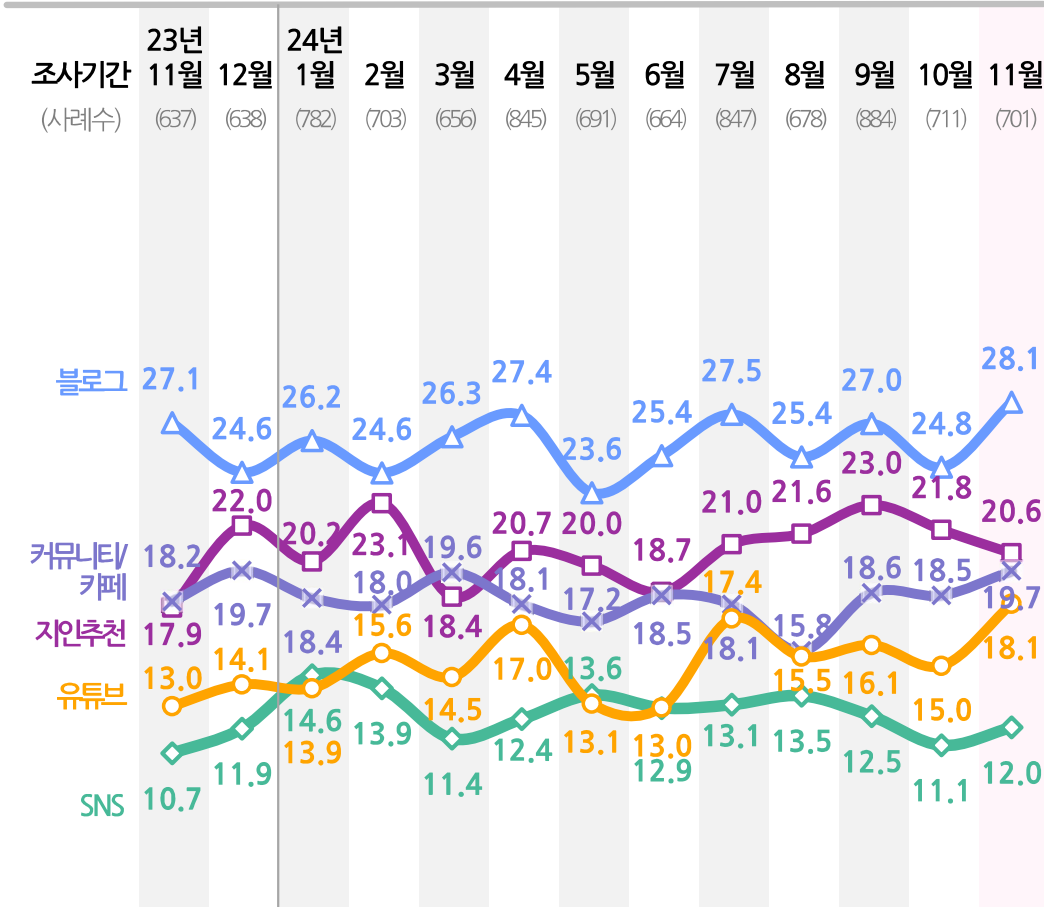
BB5-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여행지)

6. 해외여행 숙소 정보탐색

- 해외 여행 시 숙소 정보 탐색 시 '여행상품 구입채널(28.6%)', '블로그(28.1%)', '여행 전문 정보 사이트/앱(23.7%)'의 활용이 높으나, 공식/상업적 여행 채널의 활용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유튜브는 회복은 있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전년 동월 대비 +5.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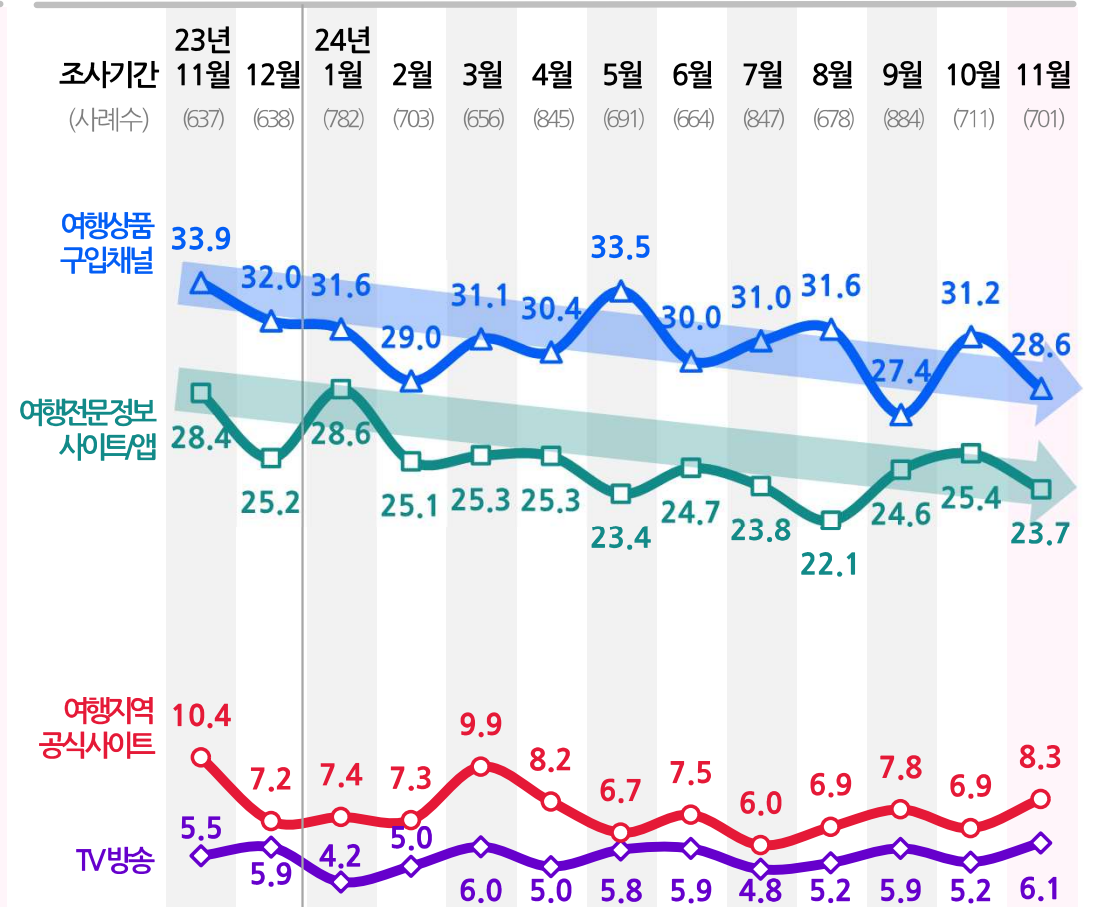
SNS/커뮤니티 정보채널

[단위: %]



공식/상업 정보채널

[단위: %]



BB5-0. 'OO' 여행의 각 준비단계에서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셨습니다?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숙소))

CONTENTS

I. 조사개요

II. 국내여행

II-1. 국내여행 동향

II-2. 국내여행 계획

III.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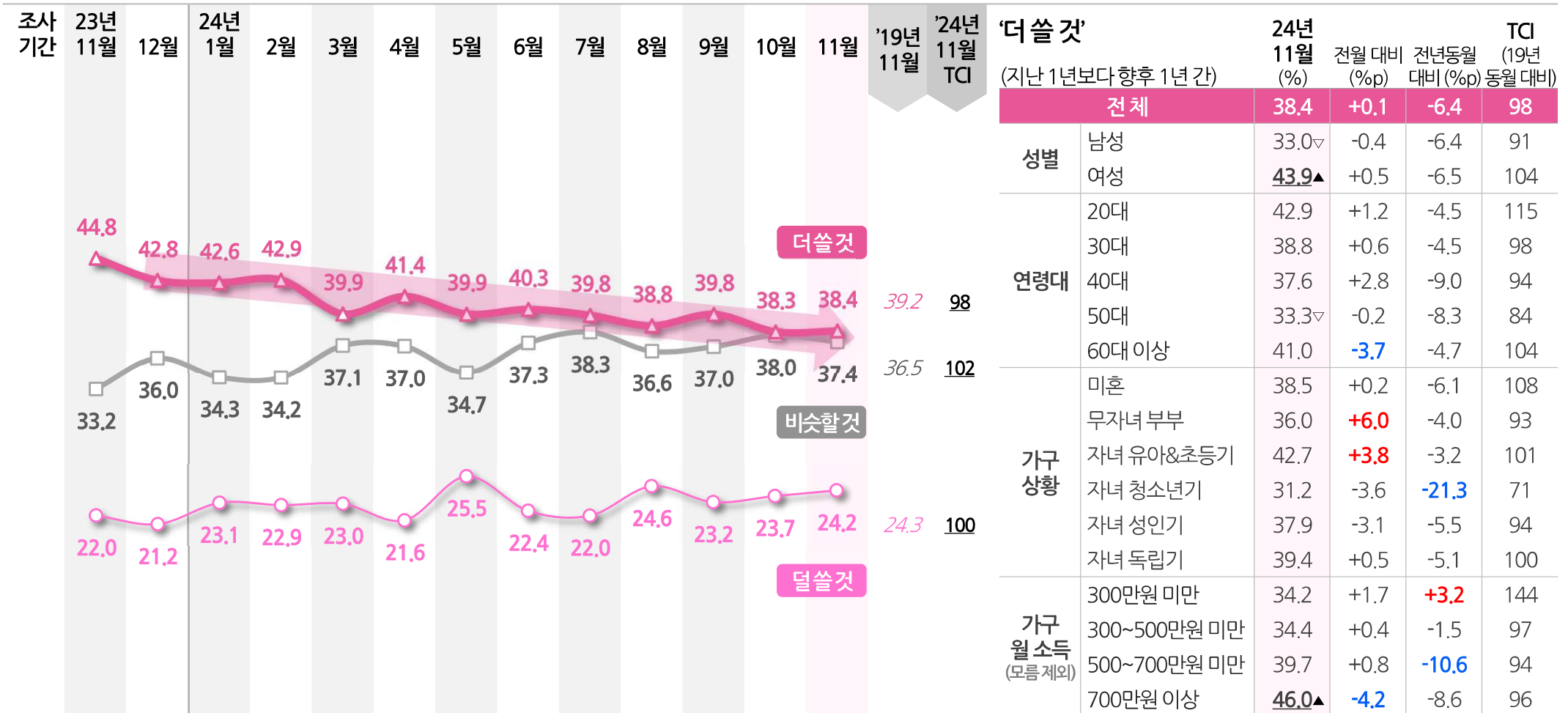
III-1. 해외여행 동향

III-2. 해외여행 계획

1. 해외 여행비 지출 의향 (향후 1년)

- 향후 1년 내 해외 여행비 지출 의향은 ‘더 쓸 것’ 38.4%, ‘비슷할 것’ 37.4%, ‘덜 쓸 것’ 24.2%임.
- 전년과 비교해 ‘더 쓸 것’은 6.4%p 감소한 반면, ‘비슷할 것’과 ‘덜 쓸 것’은 증가해(각각 4.2%p, 2.2%p), 해외 여행시장의 위축이 예상됨.
- 코로나 전과는 거의 같은 패턴을 보여 실질적인 경비축소가 이루어진 것임.
- 인구특성별로는 △300만원 미만 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해외 여행비 지출 의향이 낮아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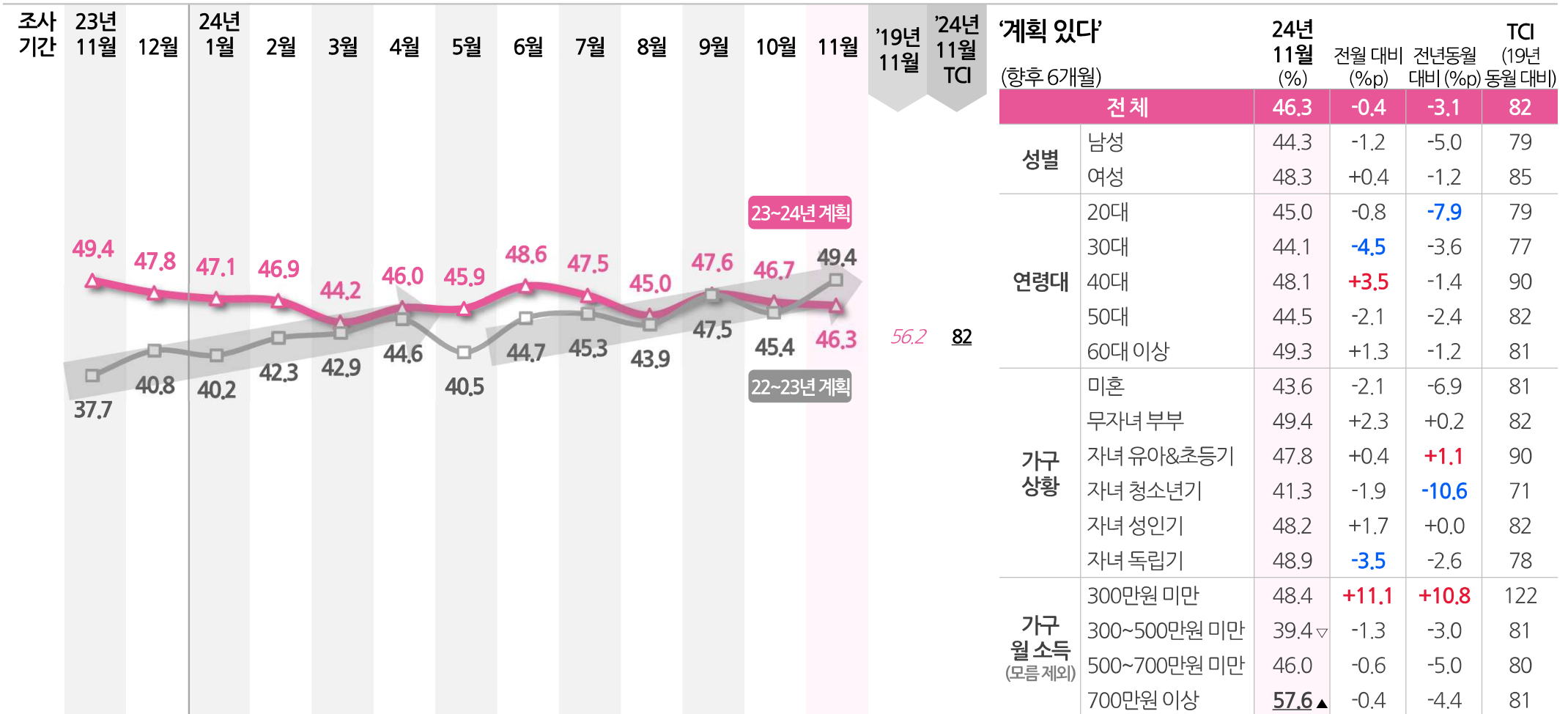
※ 조사 표본수: 주 500명, 월 2,000명(5주가 있는 월은 2,500명)
 분석 표본수: 주별 분석은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 평균함(1,000명)
 SQ1-4. 해외여행만 보면 향후 1년간 쓸 관광·여행비가 지난 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2. 해외여행 계획률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계획률(6개월 이내)은 46.3%로 9월 이후 감소세에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1%p 감소함.
- 특히, 코로나 이전 대비 TCI 82로 향후 해외여행 시장의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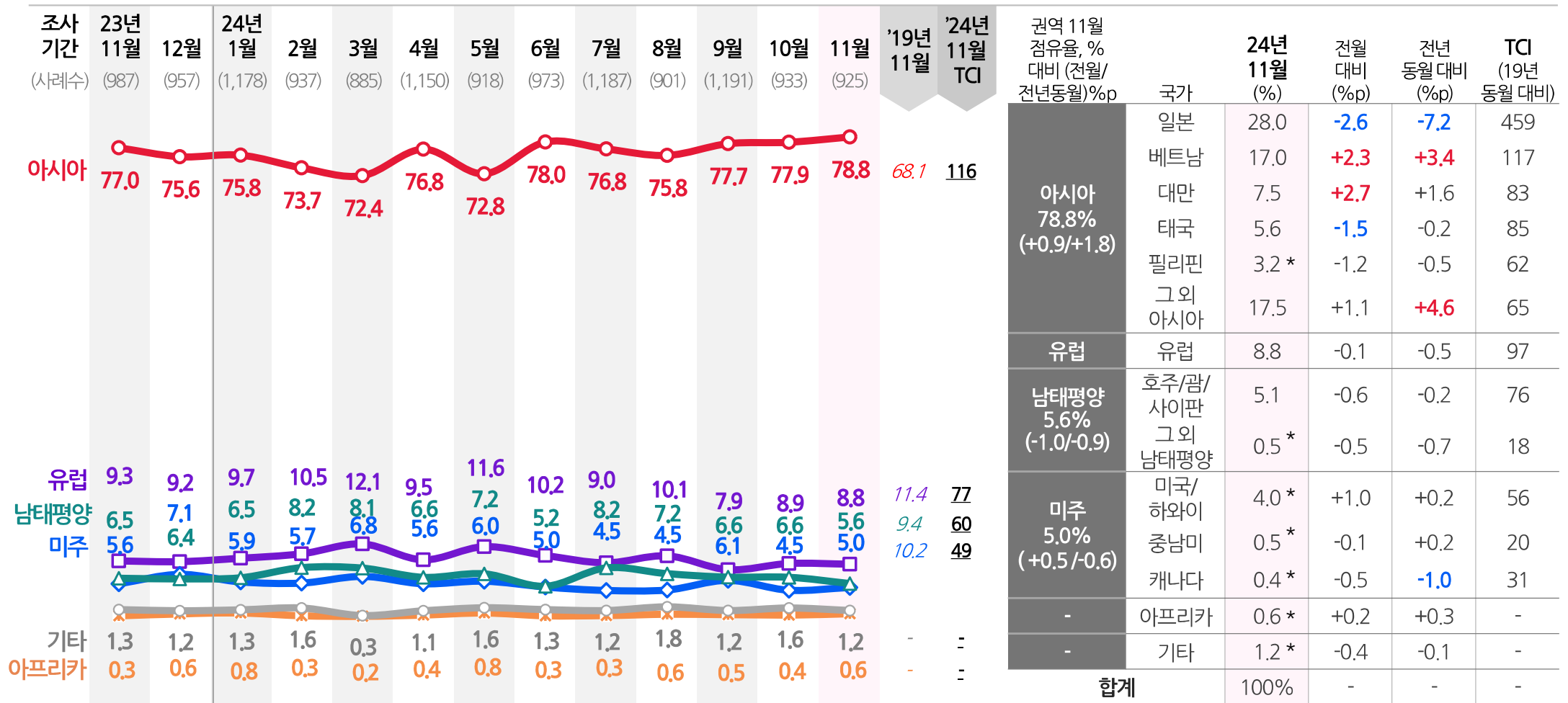
SQ4. 귀하께서는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SQ4-1. 그렇다면, 향후 6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해외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3. 해외여행 예정 지역 (향후 6개월)

- 해외여행 예정 지역 점유율은 '아시아(78.8%)', '유럽(8.8%)', '남태평양(5.6%)' 순이며, 아시아 지역은 코로나 전보다 크게 높아(+10.7%p, TCI 116) 아시아 싹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여행지 중 '일본(TCI 459)'과 '베트남(TCI 117)'은 유이하게 코로나 이전 대비 계획률이 높으며, 이는 높은 가심비의 영향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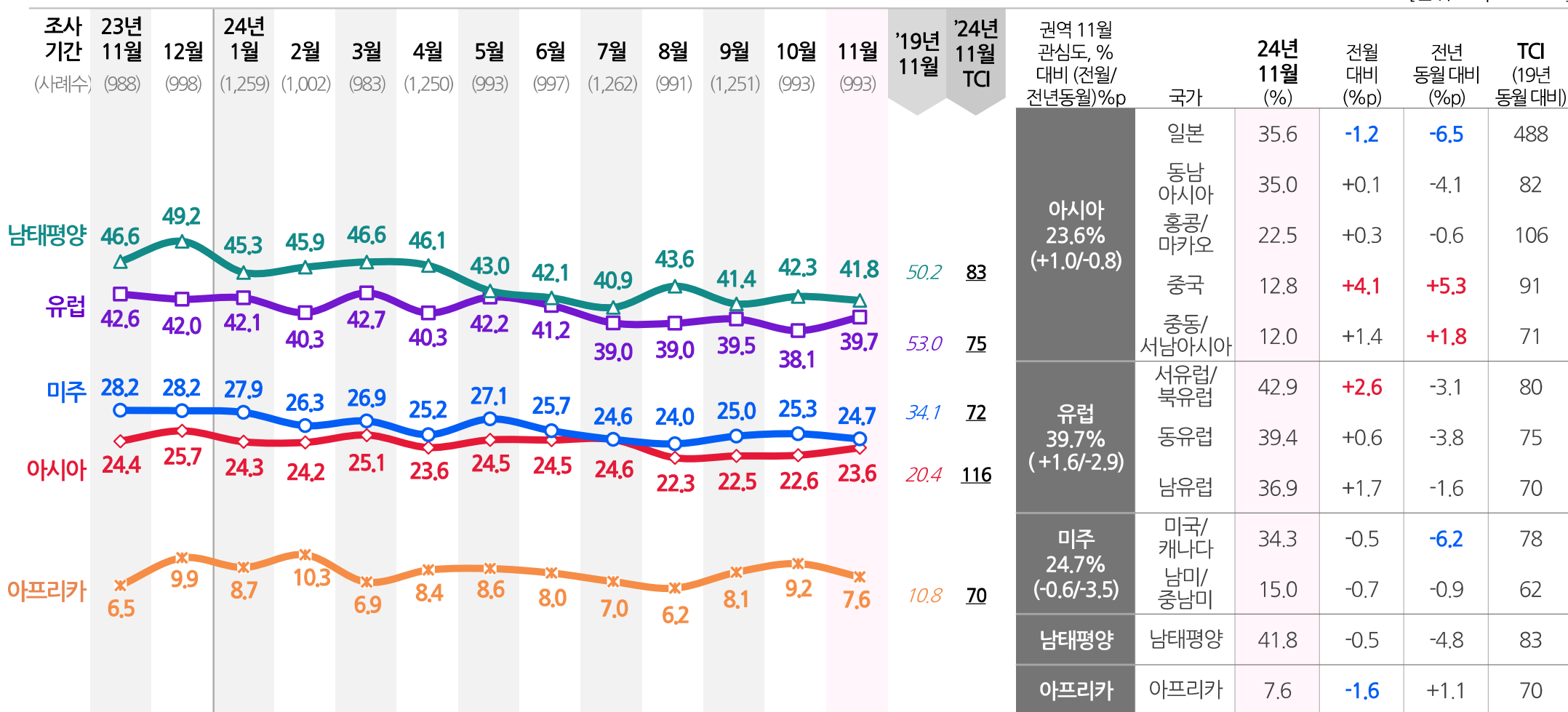
B2-1.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해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B2-2.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시기에 여행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해외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 2019년 5.0% 미만 수치는 TCI 지수를 산출하지 않고, “로 표시함

* 5% 이하 해석에 유의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4.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

- 해외여행 지역 관심도는 '남태평양(41.8%)', '유럽(39.7%)', '미주(24.7%)', '아시아(23.6%)' 순임.
- 해외여행지 권역 중 유일하게 아시아(+3.2%p, TCI 116)만이 코로나 이전 대비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관심도 상위권인 남태평양, 유럽, 미주는 TCI 80 내외에 머물고 있어, 근거리-저비용 해외여행의 선호가 뚜렷함.

[단위 : Top2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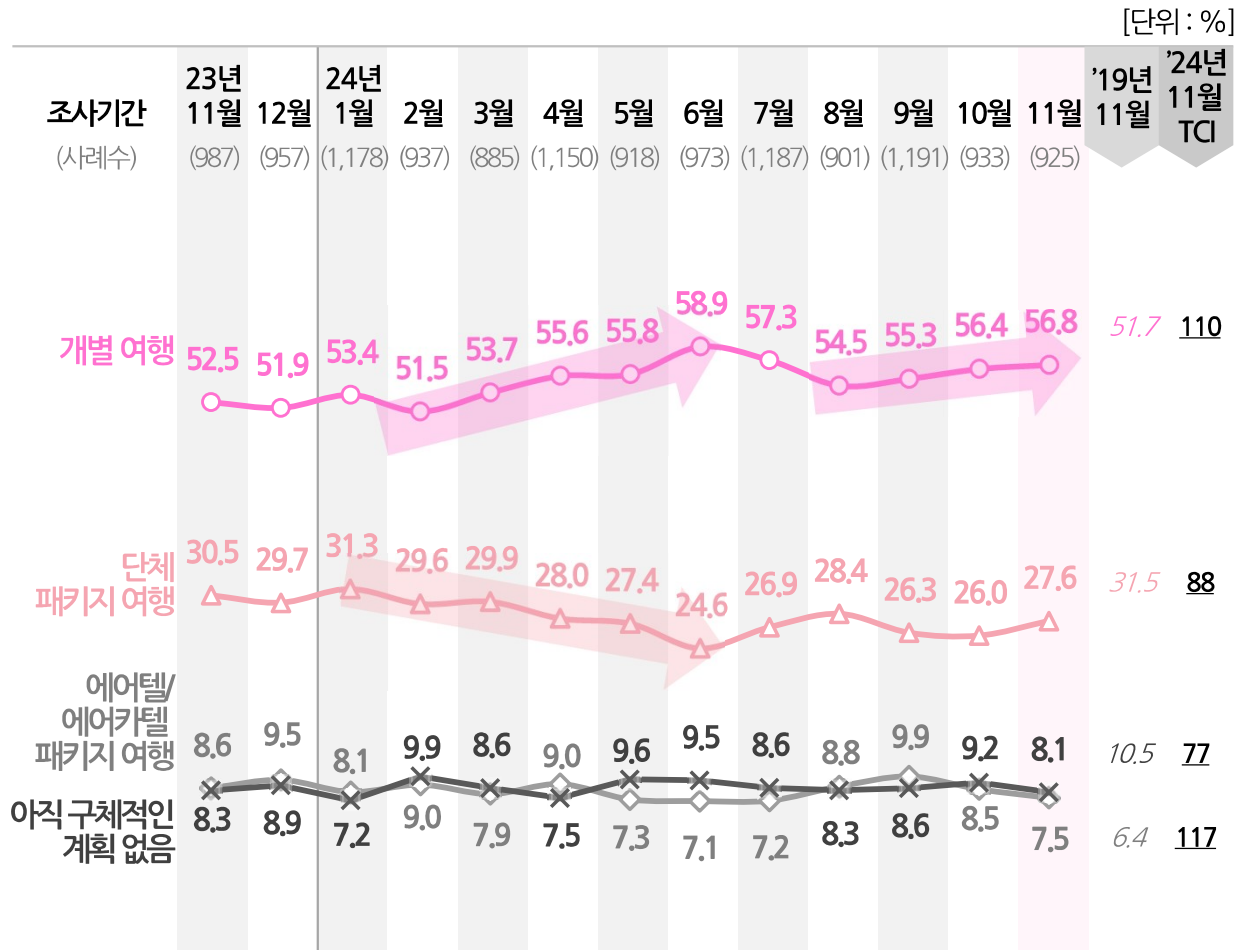


SQ3-1. 요즘 000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비해... (5점 척도)

* 비교%p는 상·하위 2개에 대해 색깔로 표시함
 ** 권역 관심도는 해당 권역 내 지역 관심도의 산술평균임

5. 선호 해외여행 형태 (향후 6개월)

- 선호하는 해외여행 형태는 '개별 여행(56.8%)', '단체 패키지(27.6%)',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7.5%)' 순임.
-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별 여행은 코로나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함(+5.1%p, TCI 110).



▶ 여행지역별 선호 여행 형태 (당월 기준) [단위: %]

	전체	여행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사례수)	(925)	(729)	(46)	(81)	(52)	(6)
개별 여행	56.8	59.2 ▲	58.9	43.0 ▽	48.0	33.1
단체 패키지 여행	27.6	26.7	17.3	42.0 ▲	21.2	50.4
에어텔/에어카텔 패키지 여행	7.5	6.9	13.0	6.2	13.5	0.0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음	8.1	7.3	10.8	8.7	17.3 ▲	16.5

B8. 'OO' 여행은 어떤 형태로 갈 생각이신가요?

* ▲ ▽ 표시된 수치는 전체 값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p<0.05)

참고 자료



2021년	11월	C 위드코로나(방역 완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12월	C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환자 발생 및 확진자 급증 C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강화(사적 모임 제한 4명으로 축소)
2022년	01월	T 트래블버블(코로나19 감염 안전 평가 국가에 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제도) 국가 확대
	03월	C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사적 모임 인원 8명까지 확대) T 해외입국 자가격리 의무 면제
	04월	C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05월	C 해외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10월	T 국내 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수 제한 해제
	2023년	03월
05월		C 정부, 코로나 엔데믹 선언 ; 6월부터 방역 규제 및 격리 의무 해제 C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하향(격리 5일 권고 전환)
08월		C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전환 C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09월		T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 시행(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10월		T 여행이 있는 주말 (10.30~12.03) T 외교부, 이스라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12월		C WHO, 코로나 변이 'JN.1' 관심 변이로 지정
2024년	01월	C 정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02월	T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캠페인 추진 (2.20~3.31)
	03월	T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일본 K-관광 로드쇼 개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04월	T 정부, 이란에 한시적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05월	T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5.6) 적용으로 '토-일-월' 연휴
	06월	T 중국 크루즈, 6년 4개월만에 부산항 입항
	07월	T 파리 올림픽 개최 T 큐텐(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발생
	08월	T 주말 포함 5일, 추석 연휴(9.14~18) T 10월 초 공휴일(국군의 날/10.1, 개천절/10.3)
	09월	T 주말 포함 5일, 추석 연휴(9.14~18) T 2024 서울 세계 불꽃축제와 '서울 라이트 한강빛섬 축제' 연계 진행
	10월	T 평년 대비 4-5도 높은 이상 기온 T 단풍 절정 시기 (10.28~31)

2024년 11월

1주	11.04 ~ 11.10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후보 당선 (11.5)
		서울특별시, '2024 서울미식주간' (11.8~14)
		'제 19회 부산불꽃축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11.9)
		2024 평창고랭지김장축제 개막 (11.8~17)
2주	11.11 ~ 11.17	대학수학능력시험 (11.14)
		대한민국-페루 관광협력 MOU 협정
3주	11.18 ~ 11.24	APEC, G20 정상회담
4주	11.25 ~ 12.01	수도권 및 중부지역 최대 40cm 폭설
		강원도 스키장 개장

2024년 10월

1주	10.07 ~ 10.13	한글날 (10.9)
2주	10.14 ~ 10.20	재보궐 선거 (10.16)
		북한, 러시아 대규모 파병
3주	10.21 ~ 10.27	태풍 '콩레이' 북상
		강원도 지역 축제 개막(원주 만두축제, 강릉 커피축제)
4주	10.28 ~ 11.03	할로윈 데이 (10.31)
		서해선-장항선-평택선 철도 노선 개통(11.2)
		평년 대비 4-5도 높은 이상기온
		단풍 절정 시기 (10.28~31)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종료(10.31)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5년 열린관광지 20개소 선정		

컨슈머인사이트 여행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여행/문화/스포츠 관련 이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r_issue

Thank You